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木)

不侵略原則下에 共通最大限主張

他國서廢止하면日本도航空母艦等廢止

委員會第二日 永野全權宣明

【倫敦十一日發聯合特派員】日本全權 永野大將이 日本海軍의根本主張을 說明할 第二日의 第一委員會는 前日同樣으로 웨스트민스터의 클라렌스하우스에서 午後三時三分(日本時間十二日午前零時三分)開會하야 午後四時五十二分(日本時間 十二日午前一時五十二分)閉會하엿다 會議는 第一日同樣으로 海相모셀氏가 議長席에 就하야 一日前日의 委員會經過를 要約한다음 今日의 委員會는 먼저 日本代表로부터 日本側의 主張을 聽取할터이다 라고 永野全權의 發言을 求하엿다 議長의 指名에 應하야 起立한 永野全權은 미리 準備한 草稿를 한손에들고 日本語로 느릿느릿하게 一語一語힘잇게 日本主張을 說明하엿다 全權은 먼저『共通最大限을 基調로한 量的制限에서는 참된 軍縮 世界平和는 도한 希望키 難하다」라고 日本根本主張을 力說하고 特히 日本海軍이 抱懷한 不脅威不侵略의 原則을 主張하야 이것을 達成하면 各國에 가장 公正妥當한 共通最大限을 最少限의 水準으로 設定하야 어느 나라도 決코 國防의 不安을 感할 理由가 업슬것을 說明하야 日本主張의 全般에 亘하야 說明하엿다고 解釋된다 永野全權의 說明中에는 日本은 他主要海軍國이 同一行動을 取한다면 主力艦 航空母艦及 甲級巡洋艦을 廢止할 準備가 잇다고 述하엿다 이날 이說明에 當하야 米國全權 스완슨提督이 압서 米國議會에서 行한 演說의 一節 『米國海軍의 兵力은 防禦에는 充分하나 攻擊에는 不充分하다』 라고 述한 言句를 引用하야 比率主義가 재미스럽지 못한 所以를 指摘한것이 特히 注目을 끌엇다고 傳하는데 全權의 說明은 徹底한 原則論에 終始하엿다고 解釋된다 在全權의 說明이 終了하자 滿田通譯이 全權의 演說을 英譯하고 또 佛譯하야 이로써 演說은 一段落을짓고 委員會는 이어서 質疑應答에 들어갓다 質問의 急先鋒은 豫想대로 英米兩國委員 特히 米國委員이엇다는데 共通最大限에 關聯하야 如左한質問이 잇섯다

一、共通最大限의 主張은 劣勢海軍의 兵力增大를 主張하는 것이냐 或은 優勢海軍의 縮少를 意味하는것이냐 日本은 即刻 兵力의 均等을 實現할 意向이냐 或은 長期에 亘하야 徐徐히 이目的을 實現할 意圖냐

一、劣勢海軍國의 水準向上을 意味하는 日本海軍從來의 建艦計畫의 具體的數字如何

一、華府會議當時 日本이 妥當타고 認定한 海軍兵力艦型을 今日 不當하다고하는 理由如何

一、共通 最大限은 모든 海軍國에는 適用할것이냐

一、共通最大限은 各艦種別에도 設定할것이냐

散會

【倫敦十一日電通特派員發】軍縮會議第一委員會는 十一日午後四時五十分(日本時間 十二日午前一時五十分)散會하엿다 次回는 十二日午前十時半(日本時間 午後七時三十分)開會할터이다

天皇陛下 多摩御陵御參拜

【東京電話聯合】天皇陛下께옵서는 來二十五日의 大正天皇御例祭에압서 十二日午前九時二十分宮城御出門 오래간만에 多摩御陵에 御參拜하옵시엇다

伊에和協試案 『에』國皇帝一蹴!

에公使佛首相訪問

【巴里十一日發電通】駐佛에디오피아公使월데·마리안氏는 十一日正午 라발佛首相을 訪問하고 英佛兩政府가 作成한 伊에和協試案은 에디오피아皇帝가 受諾할수업는바이오 特히 同案은 에디오피아皇帝가 拒絶한 五國委員會의 九月十八日案보다도 더 에디오피아에 不利하야 에디오피아의 資源地인 티그레州를 伊太利에 割讓케하려는 案을 到底히 受諾不可能이다 라고 通告하엿다 그리고 駐佛伊太利大使체루치氏는 에디오피아公使의 뒤를 이어 라발首相과 會談한바잇섯다 그리고 마리안公使는 佛首相과 會見後 記者團에 如左히 말하엿다

라발首相과 會見한것은 和協案에 對한 에디오피아政府의 正式抗議를 通達하기 爲함이엇다 에디오피아는 티그레州의 一少部分이라도 割讓할수 업다 萬若 聯盟이 그原則을 犧牲하여서까지 에디오피아를 버린다면 吾人에게 남은것은 다만 死가 잇슬뿐이다

『弱點考慮』云云은 爆彈言明으로解釋

【倫敦十一日發電通】永野全權이 十一日第一委員會席上에서 發表한 日本의 態度를 宣明한 聲明中에서

日本의 共通最高限設定主張이 容認되면 日本은 各國別로 그 相互的侵略上의 弱點을 考慮함을 妨害지안는다

라고 言明한것은 各國代表部를 爆彈的言明이라고 驚愕케하야 米國側과 如한나라는 右發言은 日米에 均等兵力을 가지게하고 英國에는 日米以上의 優勢, 海軍力을 가지게하려는 腹案을 內示하엿다고 解釋하는모양이다 即 永野全權은勿論 具體的數字를 擧하는것을 避하엿스나 外國側의諒解하는바로는 日本의 內意는 英、日、米의 海軍力比率을 五、五、四 或은 日米의 數字를 다시 引下할것이아닌가 觀測되고잇다

冀察政務委員을 國府正式任命發表

北中問題一段落?

何應欽氏南京에歸還

【北平十二日發電通】北中時局收拾의 大任을 마친 何應欽氏는 福建省主席 陳儀氏와 함께 十三日特地發南京에歸還할豫定이다

【北平十二日發電通】國民政府는 十一日深更 何應欽氏에게 如左히 冀察政務委員會 委員을 任命發表하엿다는 旨를 急電해왓다

委員長、宋哲元

委員、王克敏▲王揖唐▲萬福麟▲周作民▲蕭振瀛▲秦德純▲門致中▲高凌蔚▲程克▲張自忠▲李敏玉▲石敬亭▲胡毓坤▲劉哲▲胡劉振▲冷家驥

이리하야 北中問題는 形式에잇서서 前政務整理委員會와 全혀 갓고 內容에잇서서 相當한 自治的實質을 帶하야 變轉一個月에 亘한 北中時局도 겨우 이에 一段落을 告하엿다

程克市長以下

天津市政府幹部連袂辭任

【天津十一日發聯合】天津市長程克氏가 突然辭表를 提出하엿는데 이에繼續하야 公安局長劉玉書氏 其他政府幹部도 連袂辭表를 提出하게되엇다

日本軍縮方針에 各代表一齊反對

【倫敦十一日發聯合】十一日午後의 一般委員會席上에서 永野全權은 共通最大限을 基調로한 日本政府의 軍縮方針을 說明하고 不脅威不侵略의 原則을 强調하엿다 委員會英米佛伊各國代表의 見解를 打診하건데 各國代表는 新軍縮方式에 對하야 아직 充分히 諒解할수업는모양이다

▲英國政府側의 對策 英國政府側이라고 보이는 消息通은 十一日夜會議의 後測에 對하야 가로대 永野全權은 十一日의 委員會에서 最大限方式을 說明하엿스나 各代表는 아직 滿足치안코 十二日午前十時半부터 열릴 委員會에서 다시 永野永井兩全權에게 對하야 新方式의 意義에 關하야 敷衍說明을 要求할것이다 따라서 十二日의 會議도 共通最大限이 中心論題가 될것이다 各國代表가 目下의 一問題로하고 잇는것은 日本政府가 果히 原則上의 海軍力均勢宣言에 滿足하고 將來에 實質的均勢를 實現할 意肚가잇는지 업는지 또 英國政府가 提言한 六個年建艦計畫宣言案代身에 二個年建艦計畫宣言等의 方式으로 日本政府의 要求에 對한 妥協案을 講究할수가 잇슬것이다

▲米國代表部의 意見 米國代表部는 共通最大限方式에 絶對反對를 表明하고 并하야 公式으로 左의 見解를 發表하고잇다

永野全權은 委員會席上에서 길게 日本政府의 立場을 陳述하엿스나 別로새로운 細目에 關해서는 何等 提議하지안엇다 그러나 日本政府가 正式으로 海軍力均等要求를 提出한것은 重大한 것이다 勿論各國代表가 모다 日本政府가 꼿까지 實行하게 最少限方案을 提示하고잇는것은 信하야 不疑하나 米國代表部로서는 萬一 永野全權의 說明을 傾聽하엿슬뿐이다 如何튼 從來說明한바로는 新方式案에 同意할것갓지안타 米國代表는 十二日의 會議에서 永野全權의 海軍保障提案을 要求하고 그것을 拒否할것으로 생각되는데 拒否와 同時에 海軍縮少本會議는 停頓에 陷할것이다

▲佛國의見解 佛國代表部의 代辯者는 佛國政府는 潛水艦制限에 異議가 업스나 潛水艦은 꼿까지 防禦的武器로 역이고 潛水艦의 保有量이 倫敦條約第二篇의 存續을 希望한다

▲伊太利의見解 伊太利代表部의 代辯者는 말하되 伊太利政府는 委員會에서는 永野全權의 說明을 傾聽하엿다 或은 十二日 午前十二時半부터 열릴 委員會에서 英米兩國代表에 뒤이어 自國의 立場을 闡明하게될는지도 모른다

各國現有勢力表

【東京電話聯合】日本이 主張하고잇는 共通最大限設定의 軍縮方式은 드듸어 會議의 中心問題가되어 十一日午後三時(日本時間十二日午前零時)부터 열린 第一委員會에서 日本提案의 趣旨를 堂堂히 說明하엿는데 共通最大限度設定에 關해서는 日本은 主義로 原則으로 主張하는 것이오 그數量에 關해서는 各國間에서 充分한 檢討를 한後 決定할것이라는 方針을 가지고잇다 따라서 日本全權은 當日은 數字的 試案을 示하지 안코 委員會에 臨하엿는데 今後 討議가 進行됨에 따라 自然數字的 問題에 觸하게 될것이다 그境遇에 各國은 現有保有勢力을 主張할것이 豫想되는바 五大海軍國의 現有勢力의 比率은 英國을 一〇〇으로 米國八八、日本七七、佛國五、伊太利三의 比率을 示하고 그噸數와 隻數는 左表와 如하다(括弧內는隻數)

日本	艦齡內의總噸數	六九一、四五八(一四四)
	艦齡超過同	[illegible]
	合計	[illegible]
米國	艦齡內의總噸數	一、〇〇〇、九九[illegible]
	艦齡超過同	二六八、五〇〇(二九九)
	合計	一、〇六六、四[illegible]
英國	艦齡內의總噸數	九九四、[illegible](一五二)
	艦齡超過同	二二七、五[illegible]
	合計	一、二二二、三九[illegible]
佛國	艦齡內同	四九九、四二六(一五一)
	艦齡超過同	八三、九九[illegible]
	合計	五八一、四二一(二〇[illegible])
伊太利	艦齡內同	三二〇、[illegible](一三三)
	艦齡超過同	[illegible](六九)
	合計	三九八、[illegible](一九二)

英米의妥協案인 紳士協約案登場?

『共通最大限』問題로軍縮會議停頓한때에 第二案으로서 提示

【倫敦十一日發聯合】英米兩國側은 萬一 問題의 『共通最大限』으로 會議가 停頓하야 進捗되지 아니할 境遇에 備하기 爲하야 벌서부터 第二段의 工作準備에 着手하엿다고 解釋되는바 即英米代表部는 華府、倫敦兩條約의 兵力制限方式 持續을 主張하는 共通된 立場에서 이兩三日에 亘하야 盛히 私的折衝을 거듭하고잇는데 米國側도 드듸어 從來의 質的主義에 代함에 英國의 妥協案인 紳士協約案으로써 解釋되므로 萬一『共通最大限』問題로 會議가 停頓되어 暫時 이 問題를 더퍼두게될 境遇에는 當然 米國 又는 英國代表가 이 紳士協約案上程을 提議하게될것으로 信憑되어 從然이 紳士協約案이 各代表部의 話題가 되엇다 紳士協約主張의 指導的立場에잇는 英國側의 見解를 要約하면 如左하다

一、紳士協約案은 何等 日本의 均等原則確立條件과 抵觸되지 안는다 萬一 日本이 現在의 建艦計畫을 英米의 水準까지 引上하야 最大限을 共通로하고 십다는 旨를 暗默裡에 諒解하고 또 日本의 立場을 擁護하기爲하야 에스카레타條項을 附加하는것으로써 滿足한다면 紳士協約案은 十分 實現可能할 餘地가 잇다

一、英米兩國代表部의 立場은 再三折衝한結果、全혀 同一行動인것이 判明되엇다 米國은 今日로서는 英國의 紳士協約案에 十分 支持를 與할수잇다

一、또 米國은 紳士協約案의 協議가 表面的으로 進行되면 從來의 主力艦三萬五千噸의 主張을 讓步하야 最大三萬二千噸까지의 讓步를 考慮할 用意가잇다고 傳한다

一、以上의 諸事情을 綜合하건대 會議가 共通最大限問題로 暗礁에 逢着할때에는 紳士協約案討議에 옴기는것이 最善策이다

決定하기前에는 建艦計畫發表不能

◇…몬셀海相의七個條質問에 日本全權所懷陳述

列國保有總噸數量

【倫敦十二日電通特派員發】十一日의 軍縮會議第一委員會第二回非公開會議에서 日本全權永野大將은 長文의 聲明을 發하엿다 그重要點은 如左하다

一、日本은 日英米三國間의 總噸數『패리틔』에 基礎를 둔 海軍兵力保有量의 平等을 提案할것

一、日本은 그平等한 海軍兵力量이 最少限으로 低下되기를 希望한다 이러케함에는 主力艦隊의 軍艦隻數를 相當히 廢棄하는것이 必要한데 萬若 協定된 標準이 日本의 現有勢力以下가 될境遇에는 日本도 亦是共通標準에 達하는데必要한 噸數를 廢棄할 準備가잇다

以上의 永野全權의 聲明은 十日의 第一回會議席上에서 英國代表몬셀海相이 提示한 七個條의 質問에 對하야한것으로서 英國側의 質問의 主要點은

一、日本은 建艦計畫을 公表할 準備가잇느냐

二、日本이 抱懷한 共通最大限案이란것은 모든나라를 말하는것이냐 或은某某國만을意味하는것이냐

右에 對하야永野全權은

나는 第一質問에 對해서는 日本은 主要三國間에 共通된海軍力保有量最高限設定으로써 會議하고십다 一九二二年의 華府會議 一九二七年의 쥬네브의 一般軍縮會議 一九三〇年의 倫敦會議의 折衝은 主로 日英米三國間에 行한것으로 佛伊兩國은 或은 이會議에 參加하지안코 或은 名目만의 參加에 끈첫스므로 共通最高限은 日英米三國間에 設定할것을 敢히 意圖하려는者이다

一、共通最高限設定에 關한 日本의 主張이 本會議에서 容認되면 各國別로 相對的인 侵略上의 弱點이 各國이 모다 總化하기때문에 安全感確保上의 必要에 對하야 討議하는것을 妨害치안는다

一、會議가 各國의 保有總噸數를 決定하고 또其他의 重要事項이 決定되기까지는 日本은 그建艦計畫은 公表할수 업다 如上의 諸點에 對해서는 多少 補整을 行하여도 可하다

一、나는 日本의 侵略上의 弱點은 米國에 比하야 크다고 밋는다

一、萬若 各海軍國에 對한 總噸數決定의 軍縮條約이 締結되면 日本은 各艦種別의 縮少를 論議할 用意가잇다

十一日의 第一委員會는 上記한 永野全權의 聲明으로써 끗내고 十二日의 委員會에서는 英米佛伊의 各代表가 永野全權聲明에 對한 態度를 表明할터이다

八面錄

◇ 和協試案에 伊太利는 受諾할것갓다고、英紙가 報道。

◇ 개를주어 실타할餓虎가 잇스며 쥐를주어 실타할 善猫가 잇슬가。

◇ 依然不變하는 『弱肉强食』이라고、『에디오피아』가 反對。

◇ 참새도 죽을제는 짹하는法、反對도업다하면 三千年歷史가 無色한노릇。

◇ 共通最大限設定案으로 列國의 質問이 永野全權의 一身에集中。

◇ 五大國海軍會議인가 英米佛伊四國과 日本과의 씨름판인가。

人事·集會

▲柳生圖書課長 東京出張中十二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歸任

軍縮會議進行中 英建艦計畫發表

【倫敦十一日發電通】十一日英國下院에서 海軍次官스탄레卿은 海軍省에 一九三五年度建艦計畫追加로 驅逐艦七隻의 建造要求를 하엿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그런데 軍縮會議開催中에 英國이 如斯한 建造計畫을 發表한것은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잇다

큐바大統領更迭

【하바나(큐바)十一日發聯合】큐바共和國大統領 카르로스、멘디더博士는 十日內閣에 辭表를 提出하엿는데 右는 總選擧方法에 關한 國內紛爭의 責을 負한것이다 그런데 內閣은 緊急閣議를 開한結果 辭表를 受理하고 後任에는 現國務長官호제、에바네트博士를 推薦하기로 決定하엿다

埃及內閣總辭職

【카이로十一日發電通】埃及現內閣은 過般의 大騷擾의 責任을 負하고 總辭職하기로 決定하고 首相네심·파샤氏는 十二日正午 公式으로 國王에게 對하야 閣員辭表를 捧呈할터이다 이結果새로 聯立內閣을 組織하야 英國政府에 對하야 埃及의 獨立地位確認의 交涉開始를 要求할것으로 보인다

海軍軍縮會議와 그前途

石井란싱協約은 機會均等의 抛棄

(廿四) 雲崗生

華盛頓會議에서 調印된 重要條約의 하나로 中國에 關한 九國條約이라는것이 잇다。이것은 中國에 利害關係를 有한 日英米佛伊白和葡의 八個國에 中國을 加하야 이 九國間에 中國의 主權尊重、領土保全、門戶開放、機會均等을 約한것이다。

이만한것으로 발서 推測할수잇슬바와가치 九國條約은 米國이 主動이 되여 가지고、中國에서 日本의 特殊利益을 否認하기爲하야 만든 條約이다。

일즉 一九一五年日本의 對中二十一個條要求라는 名稱으로 傳하는 日中協約이 成立되엿을 際에 米國은 이것을 그極東에 對한 傳統的主義인 門戶開放 機會均等의 主義에 反하는 것이라하야 『우리米國은 日中間에 成立된 이러한 協約의 拘束을 밧지 안켓다。』는 旨의 留保를 聲明하엿든것이다。詳言하면 이 當時는 歐洲列强은 다 戰爭에 參加하야 極東을 도라볼 實力의 餘裕가 업섯고、그러타고하야 米國獨力으로서 日本을 相對로하야 一戰을 交할도 不辭라는 强硬한 態度로서 日中協約(二十一個條)의 成立을 反對할수는 업섯든故로 米國은 할수업시 이런協約에는 拘束을밧지안켓다는 留保의 聲明程度로 그치엇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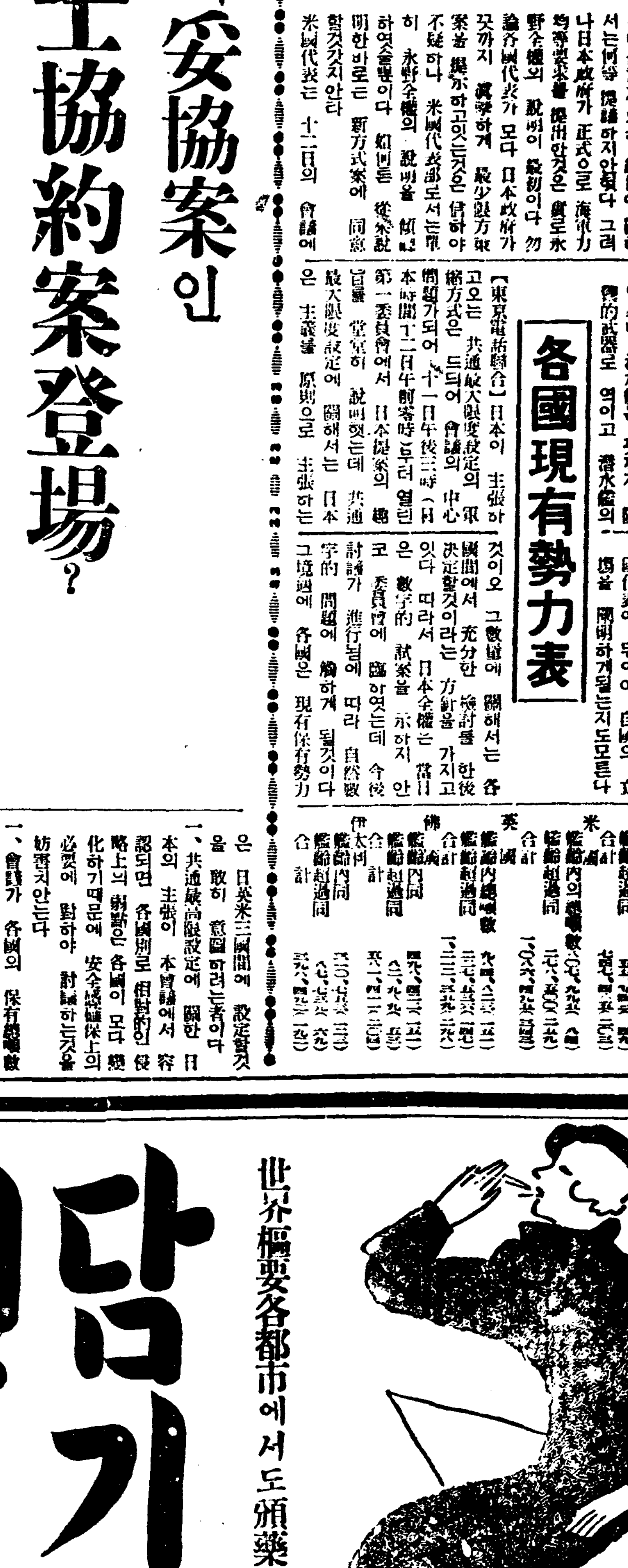
그後、約二年을 經過하야 一九一七年에 至하야 米國은 歐洲大戰에 對한 從來의 中立的態度를 버리고、드대여 大戰에 參加하게 되엿다。할수업시 參加는 하나 도리키어 極東方面을 보면 日本의 獨舞臺로 될것이니까、自國傳來의 極東에 對한 門戶開放、機會均等 主義는 飛去西陽風하고 마를 憂慮가 자못 濃厚하다는 一點에 對하야 큰 頭痛을 아를수밧게 업슬 難境에 逢着햇다。이때에 마츰 日本서는 米國이 歐洲大戰에 參加하자、石井子爵을 戰使로 米國에 派遣하면서 同氏로하여금 이 機會를 利用하야 米國政府를 說服하야 中國에 잇서서의 日本의 特殊利益을 認定하도록 하라는 內命을 주어 보내든것이다。石井子爵으로부터 이內容을 드른 米國은 이런때에 日本의 請을 듯지안허가지고 日本의 反感을 사는것은 도리어 極東事態를 惡化하는 反對結果를 내일것을 豫想하고서 (一)日本의 好感을 살 衆(二)中國에 잇서서의 日本의 特殊利益을 承認한다。그대신 中國을 아조 먹어버리지는 말라。는 意味를 품기어서 兩國間에 成立된 協約이 有名한 石井、란싱協約이라는것이다。同協約의 要領은 如左하다。

『日米兩國은 領土가 서로 接近한 國家間에는 特殊한 權利를 生함을 承認함。따라서 米國政府는 日本이 中國에서 特殊한 利益을 有함을 承認함。日本의 所領에 接續한 地方에서 特히 그러함을 承認함。勿論、中國의 領土主權은 完全히存在하는 者로서、米國政府는 日本國이 그 地理的位置의 結果、右特殊의 利益을 有하나 他國의通商에 不利한 偏頗의待遇를 與하거나、又는條約上、中國의從來他國에 許與한 商業上의 權利를 無視함을 바라지(欲)안는다는 旨의 日本政府累次의 保障에 全然, 信賴함。(註=米國政府가 그러한일이 잇기를 바라지 안는다는데 對하야 日本이 그것은 念慮말라고 累次保障해 말한데 對하야 米國은 信賴하고 잇겟다는뜻이다。)

日本國及 米國政府는 中國의 獨立又는 領土保全을 侵害할 目的을 有치아니한것을 聲明함。且右 兩國政府는 恒常、中國에 잇서서 所謂、門戶開放又는 商工業에 對한 機會均等의 主義를 支持하기를 聲明함。또 特殊의 權利又는 特典이 中國의 獨立又는 領土保全을 侵害하거나、或은 列國臣民又는 人民이 商業上、工業上에 잇서서의 均等의 機會를 完全히 享有함을 妨害하는 性質의것에 對하야는 兩國政府는 何國政府가 獲得함을 不問하고 此를 獲得함에 反對한다는것을 서로 聲明함。』(註=右要領으로 알바와가티 有協約은 (一)日本은 中國特히 日本의 接續地인 滿洲에서 特殊한 利益을 有한것을 米國은 承認한다。그러나 (二)日本의 特殊利益은 中國의 獨立又는 領土保全을 侵害하야 列國人의 商業上의 機會를 妨害해서는 안된다는 意味를 規定한것이다。)

그러나 一國의 特殊利益承認과 機會均等과는 到底히 相容할수 업는것이다。그러기때문으로 米國은 石井、란싱協約으로 因하야 二十一個條當時의 留保聲明을 스사로 抛棄하는同時에 中國에 잇서서의 日本의 特殊利益、特히 接續地인、滿洲에 잇서서의 日本의 特殊利益을 承認하므로 因하야 그傳統的 對極東政策인 門戶開放、機會均等主義의 一部又는 全部를 抛棄한셈이 된것이다。(續)

登錄商標



世界樞要各都市에서도頒藥되는

담기침 천식

特効藥 龍角散

기침을참으면 體重이주러든다고까지 합니다。기침、담、천식、百日咳는、輕하게生覺하지만 瞬時間에肺炎、肋膜炎、肺結核으로 變하기쉬운것입니다。그러므로 기침이 이러나면곳 效力適確한 龍角散을 服用하시와 根治하시요 우리龍角散은 海外諸國에서 好評이자자한 特効藥이오니 곳 服用하시는것이 조습니다。

龍角散(용각산)

三大特長

(一)龍角散은 優良한原料만 配合한藥이故로 小量으로도 極히 適確한 效果가낫타나며 (二)香味가매우爽快하여서 먹기조흔故로 乳幼兒、病者、어린애게도 먹이기조흐며 (三)또한 副作用이업서 조흔氣分으로 完全히治療目的을 達할수잇습니다

"RIUKAKU-SAN"
Good Medicine
For The Cough and Asthma

龍角散의適應容態書一

(喀痰)/담으로항상콜록콜록하는분
(喘息)/천식으로그르렁거리고숨찬분
(咳嗽)/기침이잣고밤잠못이루는분
(流感)/류행성감기로생기는담기침나는분
(肺病)/늘폐병으로바튼기침하는분
(血痰)/담에서냄새나고피석기는분
(音啞)/목소래가쉬고또는인후아픈분
(小兒)/백일해와홍역기침하는아해

定價
二日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發賣元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株式會社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淺草(67)一〇〇〇

▽全朝鮮各藥房에서팝니다△

D10―7

群小自動車線路를 局鐵私鐵이 統制

□□産業界全般을風靡하는統制風□□

小資本業者는 어데로?

총독부에서는 수년래 산업교통, 운수, 전긔 기타 중요한것은 모조리 통제하야 전조선적단일회사로 통제하며 또는 한지역을 중심으로한 통제등을 알선하야 단행식히고잇다

그런데 이와가튼 산업의 합동과 통제가진행됨에따라 군소업자는필연적으로 매수 합병되야 몰락의 과정을밟게되며 그반면에 대자벌의 진출은 맹렬하여지는데 최근에도 자동차중요선로를 철도국에서 매수하거나 또는 대사철도 회사에서 매수하며 경성을 중심으로한트럭크 늬자동차 운수업의 통제계획이 당국의 알선에의하야 진행되고잇다한다

군소업자의 합동에따라 대회사로조직되면 경영자체는 합리적으로된는지 몰으지만 결국회사는대자본이 독점지배 하게되야 소자본을 가지고개인적으로 경영하여가면 넉넉히 유지하여갈것도 합동통제에의하야 약간의 주권(株券)을 가저도 사실에잇서 그리익배당이라는것은 근소한것으로 군소업자는 생명마저코말게된다 더욱가종 산업이나교통운수업에는 조선인의군소경영자가 매우만흔터에 이와가치 당국의 적극적알선에 의한무리한통제의 강행은 결국대자본의 독점을촉진식히고 군소업자의 몰락을급속히 실현식힘에 불과한것으로 통제!통제!하고 무엇이나모조리한가지로 통제하여놋코십허하는일종의 통제풍 류행에대하야 신중한 고려를기대리고잇다

五百餘名共産軍 千餘士兵과待機

鴨綠江의完全結氷을기다려 江岸官署襲擊計畫

【咸興】 무송현방면에 숨어 잇는 약오백여명의 공산군(共産軍) 대부대는 압록강에 완전히 결빙할때까지 림강장백(臨江長白)량현내에 숨어잇는 천여명 토병단과 합체하여 압록강이완전이 결빙하게되면 일제히강가의 일만공서(日滿公署)를 습격하여 무긔탄약을 강탈할려고목하전긔량현각처병단에게 격문을 송부하는일방 그준비를하고 잇는 중이라는데 의용산군은 가장예민한무긔를가지고 잇스며 그세력이국히크다고 하는데 이런정보를접한 강안각경찰서와 국경각경찰서에서는 극도로 긴장하여 물샐틈 업는엄중한 경계를하고 인다

『寡婦의一分錢』

人力車夫組合이醵金 同情週間에義捐

가난한사람의 설음은 가난한사람이 아러준다고 세말동정주간(歲末同情週間)을 당하야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관내에 잇는 인력거차부의단체인 경성동부인력거영업조합(東部人力車營業組合)차부오십명이 업는주머니를 터러서 푼전을모아 칠원칠십전을 맨들어가지고 십이일아츰에 그대표자오복인(吳福仁)이가 자긔들보담 더불상한 사람들에게 주어달라고 소관동대문서보안과에 가지고왓는데 그고마운따뜻한인정에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

職業婦人協會總會

시내 인사동 태화녀자관(市內仁寺洞泰和女子館)안에 잇는 직업부인협회(職業婦人協會)에서는 십일에 동회관에서 총회(總會)를열고 명년도 임원의 선거가 잇섯는데 아프로 동회의 혁신에 대하야 장시간 토의가 잇섯스며 새임원들은 오는십삼일 오후다섯시동회관에 다시모이기로한후 폐회하엿다한다

新任員
一、會長 李淑鍾
一、總務 崔活蘭
一、庶務部長 盧天命
(가)書記部 趙明愛
(나)調査部 鄭英淑
一、財務部長 鄭貞淑
(가)會計部 崔良熹
(나)金融部 文仁順
一、事業部 部長 黃信德
(가)知育部 朴奉愛
(나)社交部 宋玉璇
(다)職業紹介部 朴永福
一、國際部長 朴仁德

離脫한十八敎會 京中老會를組織

긔보=예수교장로회 경성로회(京城老會)에서 년래로 분규를 거듭함에대하야 이것을 타합하랴 노력하다가 필경정면충돌을 피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리하야 나오지입 개교회에서는 다시그후 찬동하는 교회를 어더 전후 열여덜교회가 모혀 지난 구일밤부터 이틀동안 시내 묘동(妙洞)례배당에서 회의한결과 따로이 경중로회(京中老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리석진(李錫鎭)씨가 취임하야 전도, 사경기타 여러가지사업을 결의하엿다는데 요전 경성로회에서 예엣탈퇴회원의 처분을 행한것은 전연상관이 업는일이라한다

今夜 午後七時 本社大講堂에서
第二回 桂貞植氏提琴獨奏會
會員券 一般 一圓 學生 六十錢 主催 朝鮮日報社

大規模紅蔘密造團― 鍾路署에서檢擧

倉庫에製造貯藏해둔것만 五千餘圓어치現品

최근개성(開城)에 본거를둔 홍삼밀조(紅蔘密造)단이 시내에 잠복하고잇다는 것을탐문한 시내 종로서(鍾路署)사법계에서는 수일전에 개성(開城)에서 상경한 전매국(專賣局)목촌(木村)촉과 협력하야 맹렬히 활동한결과 드듸여 십일일 오후세시경에 시내 청엽정(靑葉町)에잠복하고잇는 수범인 개성부 북본정(開城府北本町)오백사십 일번지에 사는 전과 일범의 최재한(崔載漢)(三七)과 개성부 동본정(東本町)륙십사번지에사는 박찬긔(朴贊基)(三二)를 체포하엿스며 종로서 김(金), 정(鄭)두형사는 개성으로 출장하야 공범체포에 활동중이엇는데 십이일 오후두시오십이분자로 공범자세명을 체포하여왓는데 우선 그들의 취조에따라 나타난사실만해도 일백수십근의홍삼(紅蔘)을 밀조하여 비밀창고에 감추어두엇는데 그 가격만해도 오천여원에달하는바 방금 종로서에서는 아들을 홍삼전매령위반(紅蔘專賣令違反)으로 엄중 취조중이다

歲暮를못견듸나 出奔女가續出

살을 버이는 무서운 추위가몰아오자 따뜻한옷과밥을 대여주지못하는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대목의거리로 도망질하는젊은 안해가만타 시외 신당리(新堂里)사십일번지의 칠십이호에사는 최정득(崔丁得)의안해되는함

自働車에轢傷

지난 십일 오후아홉시십분 시내 회원정(花園町)구십칠번지 길앞에서 본정(本町)오정목 십삼번지 『피쥰직』당에 심부름군으로잇는 문경원(文景元)(一○)이가 음식을 목판에 담어 억개에 메이고 길을건너가다가 광화문통(光化門通)구살마노(鍾路)자동차부 운전수 방귀복(方貴福)(二三)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머리, 다리 등 여러곳에 기픈 상처를 밧고 부민병원(府民病院)에 입원시켯는데낫기까지는 두달이나걸릴모양

十八年役치른後 二十年役또求刑

櫻井町强盜今日公判

지난달 이십이일새벽 세시반에 시내앵정정(櫻井町) 일정목 김치장사 취방행일(諏訪幸一)의 집에 비수를 들고 침입하엿다가 그집주인에게 부상시켜강도살인미수 전과이범 남원군동면동감리(南原郡東甘里) 출생이최병권(崔炳權)(三七)에 관한 강도상인(强盜傷人)피고사건은 십이일 오전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 민(閔)검사의 간여로 공판이 잇섯는데 심리가 끗난뒤 검사는 징역 이십년을 구형하엿다

피고는 강도살인미수죄로 동소관형무소(小管刑務所)에서 징역 십팔년의 복역을 마치고 금년 팔월 이십륙일에 출옥하엿는데 그형무소에서일해서 저축한 돈 팔백칠십륙원을 비터가지고 나왓슴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도라와서 전과취방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드러가서 주인을 협박하야 돈을내노흐라고 강청하다가 주인 가족일동에게 복잡하게 되엿는데재와 고추가르로 그들의 눈에던지기까지하엿다 한다 판결은 오는십우일에 언도하기로 되엿다

"出勤悲劇"!

出勤時間이느진바람에 鐵둑으로달리다轢傷

월급자리다니는곳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섯스나 시간이느저서급히 다름박질해가다가 뒤에서달려오는기차에 치여서 죽게된가엽슨 직공―시외한지면 주성리(漢芝面鑄城里)삼십구번지 김삼돌(金三乭)의 맛아들 철공 명길(明吉)(二○)은 십이일아츰여섯시오십팔분쯤해서 자기가다니는 시내청엽정(靑葉町)에 어떤철공소에 출근하고저 집을나서자시간이 정각에서 좀느젓스므로길을 주름잡어가노라고 철둑길로 급히 다름박질해가다가 서빙고(西氷庫)정거장구내에 다다랏슬 지음 때마츰 청량리(淸凉里)를떠나 서울쪽으로 달려오든 오백사호기차에 뒤로치여서머리, 다리등 여러군데 중상을 밧고곳철도병원(鐵道病院)에입원햇는데 목숨이 경각에잇다한다

天氣豫報

北中國에잇는 七八○미리以上의高氣壓은 조금南下하엿스나 그勢力은아즉强하야 朝鮮을거처 本州로뻐지고 高低氣壓의差가 五○미리를 超過코잇다 滿洲朝鮮地方은 北西의季節風이强하고 日氣는조타 치위는 激甚하고 湖南地方에는 小雪이잇다 表日本은 大概晴 裏日本 北海道 樺太는 風雪이 激甚하다

豫報=京城地方、今夜北西風 晴 치위는繼續、明日도同一 京畿道大體、今夜도 明日과갓다

昨日 最高 零下 八度二 最低 零下十三度六
今日 朝 零下十四度九
今日 正午 八、七

脫走한遞信局員外 十一名男女檢擧

東大門署서取調中에잇는 赤色事件漸益擴大

긔보=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고등계에서 약한달전부터 체신국(遞信局)원을 중심으로한 적색비밀결사의 단서를잡고 체신국원 리인환(李仁煥)외 오륙명의 청년을 검거하여 취조중이던바 그수범으로 지목되든 시내락원동(樂園洞)이백이십오번지 사는 체신국중앙전화국시험실(中央電話局試驗室)근무의 정태헌(鄭泰憲)(二六)을 노처서 취조와검거의손이 일시 자는듯하더니 지난 십일에는 드듸여 시외돈암리삼선평(敦岩里三仙坪)장해창(張海昌)(二七)의집에 숨어잇는 정태헌을 장해창과함께 검거하여 오는동시에 계속적으로 련일활동을하야 십일일에는 그의『심파』협의로 정정숙(鄭貞淑)(二○)외 청년남녀다섯명을 검거하고 십이일 새벽에도 청년여섯명을 검거하여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인데 수범이 체포되매큼 흥분된체신국속으로 깁히 검거의손이 뻐칠는지몰라 일반의 주목을 크게끌고잇다

騙財한少年

어룬就職식혀준다고 前後五回에六十餘圓

어룬들을 취직시켜준다고 이사람 저사람에게서 돈을 속여먹은 앙큼한 소년―부외한지면왕십리(漢芝面下往十里)오백칠십오번지 리한용(李漢鎔)(一八)은 지난시월에 실직을 하고나서 잔돈푼이 궁하므로 한계교를생각하고 지난달 스무날시내광희정(光熙町)일정목십오번지리석순의 생질 박순창(朴順昌)(二○)이가 직업을 못어더 애쓰는것을 기회로 본정(本町)어떠상점에취직시켜준다 빙자한다음 돈오원을 바든것을 비롯해서 전후다섯번에 륙십여원을 속여먹으사실이 드러나서 십일일 룡산서(龍山署)원에게 붓잡혓다

戶籍係窓口에 나타난歲暮相

印鑑證明沙汰가날지경

넘기어려운 년말의 한고개도 눈압헤 닥치고보니 시내시외에는 회합의왕래도 빈번하려니와 눈에 보이지안는 리면에는 은근히 분주한 채권채무의 변제마감등으로 분주한바가잇다 지난 십일까지 경성부호적계에드러온 인감증명원(印鑑證明願)은 총계사천팔건인데 작년동긔의것 삼천일백오십사건에 비하면 칠백오십이건의 격증을보엿는데 평균매일 백건식되든것이근자에 일르러서는 그갑절이되는 이백건 평균이 담하지하야 호적계의 창구(窓口)는전장과가튼 혼잡을 이루고잇는바 이는토지건물기타 부동산의 갑으종전보다 오름에 따라서 이것을가지고빗을 어더 빗을 가리는경향이 만흔까닭이라는데 이외가튼어사중간에 금융업자들만 더욱살찌게되는 세움이라한다

運動競技

白狗滑氷俱主催 中等氷上爭霸

一月十八日漢江링크

白狗滑氷俱樂部主催의 第四回全朝鮮中等學校氷上對抗競技大會는 來一月十八日(土)正午부터 漢江特設링크에서 擧行할터인바 諸般規定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한다

一、申請期限 一月十五日下午五時까지
一、申請場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六 朝鮮體育會館內、白狗滑氷俱樂部(電光五五七八)
一、參加金 每校三圓也
一、參加種目 五百米 千五百米 五千米 萬米 二千米繼走

◇大會規定
一、本大會에서 最高點을 獲得한學校에 優勝旗와 優勝盃를 授與함
一、各競技種目에 一着을占한學校에는 各種目의 優勝盃를各各授與함
一、最高點이 同點인同時에는各種目의 優勝者多數인校로써함
一、本大會選手權 各種目에서失格업시 總距離를完全히會要하되 最低의 總點數를 獲한選手를 優勝者로함
但該優勝旗及 優勝盃는 次回大會까지 優勝한學校에서 此를保管함
一、新記錄員、各種目新記錄比例로하되 同比인時는 各種目新記錄率로서 此를定함
一、本大會入賞은 二着까지로定하고 入點은 五着까지로하되 採點法은 如左함
一、本大會에 出場選手는 當該校長의 在籍證明을要함
一、本大會에 每校의 出場選手는每種目에 三人式으로 定하고 릴레―는 每校一組로함
一、各組에 配入할 人員數及時間配定은 本部에서 此를定함
一、競技方法은 다임레―쓰로行함
一、審判規定은 昭和十年度 大日本滑氷聯盟年鑑附錄에 準行함
▲採點法 一着五點、二着四點、三着三點、四着二點、五着一點
但繼走는 倍數로서 採點함

普專籠球部 二十九日에出征

明春一月四日부터 東京에서 열리는 全日本綜合籠球大會에 出場할 普專籠球部一行은 來二十九日午後三時 京城驛發『노조미』로 떠나 釜山에서 同校럭비部와 同行하야 途中大阪서 一泊코 一月一日에 戰地東京에 到着할 豫定이라하며 宿所는神宮外苑靑年館이라한다

世界빤탐王座目標 徐廷權再次渡米

來十六日京城떠나 東京들녀 二月에는國際舞臺로

朝鮮이 나은 拳鬪界의至寶 徐廷權君은 滯米三年間에 世界빤탐級第六位라는榮譽를차지고 지난九月十五日에 錦衣로故鄕에도라와섯는데 君은鄕里全南順天에잇는 嚴父의命令인지라 一時歸鄕하엿든터이며 오직世界빤탐級王座를 獲得하기까지奮鬪하겟다는 굿은決心을품고 再次渡米할 터이라한다 徐君은 來十六日에 京城을떠나 一時東京에 머믈러 잇다가 明春二月에는 그리운國際舞臺를차저서 渡米할터이라하며 君의目標인現在世界選手權保持者『씩스토·에스코발』選手를한주먹에 降伏시키고 『빤탐級』王座를차지할것도 目睫間으로 君이또한 米國各地를 轉戰하며痛快한뉴―스를傳해줄것으로 期待된다 (寫眞은 徐廷權君)

올림픽氷上代表 奉天서歡迎會

【奉天】 世界氷上올림픽에 出場하는 우리의勇士 金正淵、李聖德、張祐植三君을 마지한奉天에서는 十日午後七時에 千代田通志城飯店에서 奉天體育主催의三選手歡迎兼送別會는 四十餘人士가 參席한가운데 열리어 會長池錫模氏의 激勵辭를 이어 任桂花氏의 選手紹介가잇슨後 李聖德君의答辭가끗나자 食卓으로옴겨 主客間에 胸襟을披瀝하고 歡談을 交換다가 同九時頃에 萬歲三唱으로 散會하엿다 (寫眞은同歡迎會場)

中央佛專氷上部 碧潼서合宿練習

中央佛敎專門學校氷上部에서는今씨―순의 活躍을目標로 來十四日京城을떠나 平北碧潼에서 合宿練習을實行할터이라는바 一行의 陣容은 다음과갓다
▲引率者 朴成熙 ▲主將 全泰益 ▲李正秀 康泰善 申東鉉

昌慶苑滑氷開始

在京스케―터―들의 樂園地! 昌慶苑 氷上競技場은 數日來의 酷寒으로 完全히 結氷되여 今十二日正午부터 一般에게 公開하엿다는데 昨冬에 比하야 二十餘日이나 일르다고한다

恩給 低利即時立替 京城鍾路五ノ三二一番地 京城師範學校北川邊

(米)朝報案內
採用 地方에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檢定染料販賣의素養이有한分으로著名家庭藥書類提出 午前十時至午後四時까지本人來談 市內舖貫한保證人二人을要함
京城橋北洞六(橋北電車停留場前) 中央商工合名會社

特許 實用新案 販路擴張 記念 有限期間
毛附 脫穀機 新最式 籾摺機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櫻農機製作所

自轉車 卸問屋直賣 信用重視
在庫品豐富 臨時特價 新品 十五円 中古 七円 四円 五円
優秀特製自轉車 リヤカー 太輪 特典付 定價表進呈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ノ六 一美商店 電話日本橋三七○二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九一一五九

하혈 下 患者에
남녀간 하혈로 고생하는분은 京城礎上自生堂으로問議하면 世界秘方 永久完治 服用은半額貳圓 試服後差度가잇거든 完治는總症六圓 重症十圓

痔 오세로 치질藥으로 疾 ¥0.30 ¥0.50 全國各藥店에잇슴

はれやか 잡스시라고 宴會歸路에 (宿醉·頭痛) ¥0.30 ¥0.50 ¥1.00

떡으면五分에下熱함
竹村의 구뿌돈 製
藥價廿錢 卅錢 五十錢 一円 大阪東區南久太郎町二丁目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番

世界的新發明 寫眞界革命兒 金屬寫眞!!!

金屬寫眞 新發明品金屬寫眞은網目銅版을寫眞化한것으로寫眞銅版에寫眞을化學的方法에依하야彫刻하고電鍍的方法으로彩色한것으로從來에업는美術的新特殊寫眞입니다

三大特長
一、彫刻的像인故로銅像과가티永久的입니다
二、彫刻과彩色의調和에잇서從來에업는新藝術的寫眞입니다
三、彫刻이化學的方法에依하는이만큼生産이極히低廉히되므로普通寫眞과價格이同等합니다

必要性 普通寫眞은其壽命僅數十年에不過할뿐外라一次不意汚損할時는一擧에無用物로歸하고맙니다。然이나此金屬寫眞만은永久히當身의寶像을遺存할수잇습니다。누구나一人一枚는必要하다고밋습니다。

謹告 本人의發明品인一種의金屬寫眞을京城工硏社란名稱下에世間에出品한以來過去一年間社會諸賢의過分한聲譽과莫大한愛顧를蒙하읍은實로感賀不己하는바로玆에謝하나이다 今回에至하야本人이過去一年間經營하여온京城工硏社는社務에依하야此를解消하고玆에更히本合資會社朝鮮工藝社를創立하고特히顧客諸位의便益과技術의向上을圖하야社會諸賢의滿足을期必코저하오니照亮하신後倍前의愛護와試驗을賜하심을謹願하나이다 社長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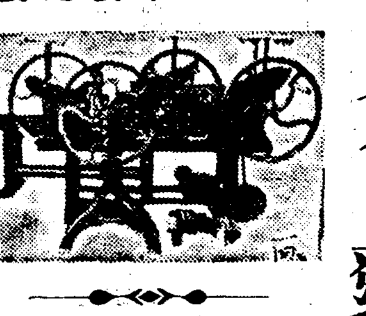
◎地方代理店募集 (月收數百圓以上確實 詳細는照會要二錢切手同封)
外務員招聘 (履歷書持參 詳細來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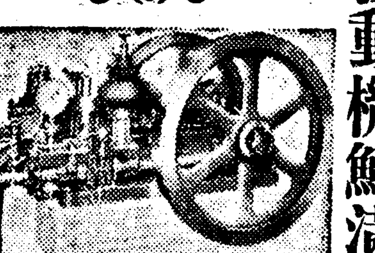
京城府橋南洞十六 合資會社 朝鮮工藝社 社長 車廣恩 (東京工業大學應用化學出身) 電光(3)八六四番
工場 京城府慶雲洞九六 電光(3)二一四八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學生募集 玉屋時計師養成所 技術者에 失職업다 學者하라 時計技術을 個月間責任養成卒業後 斯業就職紹介 規則書要二錢切手添付申込次第送呈 新義州若竹町十一

特許新案 長谷部式製麵機 王覇中機麵製
九月二十日限大特價直卸開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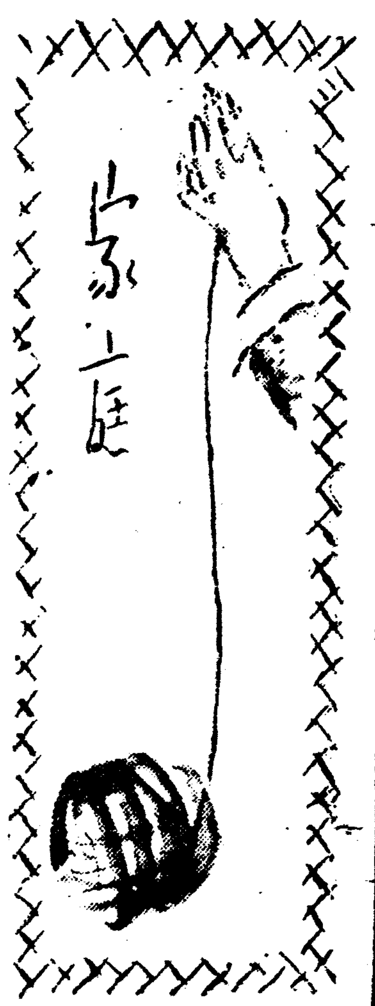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自二馬力 至十八馬力 請求에二錢切手要함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伸和式 重油機關 自動籾摺機 配給所
京城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朝鮮販賣元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포리도―루
朝鮮初有의大全集盤出現!! 四大國唱畢生의力作!!
唱 (19235) 沈淸傳全集 A……序篇 B……沈奉事內外相議 (二十五枚中第一回發賣)
劇 (19260) 華容道全集 三顧草廬篇 (十八枚中第一回發賣)
李東伯 丁貞烈 金昌龍 曺學珍 文蓮香 林素香 鼓 韓成俊

一月新譜
新民謠 歲月歌 / 朝鮮의밤 鮮于一扇 (19231)
流行歌 눈물의부두 王壽福 / 沙漠의情歌 全玉 (19232)
流行歌 夜月空山 / 雪嶺을넘어서 金龍煥 (19233)
俗曲 寧邊歌 鮮于一扇 / 마누라타령 金周鎬 (19234)
레―코―드



밥대신요기되는 설설끓른 고구마

양분은노란고구마에더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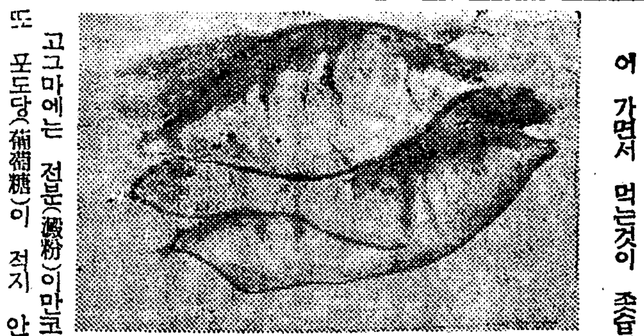
아라두어야할먹는법

치운 밤의 군것질로는 뜨끈뜨끈한 고그마가 제일입니다.

목이 맥히어 체하기가 쉽다고 애기네들에게는 잘먹이시지 안치만은 특별히 부인네의 몸에 조타고 부인네들은 편괴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인네의 몸에 특별히 조흔지는 몰라도 애기네에게 조금씩 먹이어서 아모 탈이 업습니다.

오히려 되지 못 한 과자나 사탕(부스럭이보담은 칠썩 낫지 안할까고 생각합니다. 먹는 방법은 쩌도조코 구어도 조코 밀까루를 씨워서 기름에 부처도 조코 아모래도 조습니다.

단지 빽빽하야 목이 맥히기 쉬웁듯 더운물을 마시어 가면서 먹는것이 조습니다.



고그마에는 전분(澱粉)이만코 또 포도당(葡萄糖)이 적지 안습니다. 담백질(蛋白質)은 업지 안하되 비교적만치안한 편이요 지방(脂肪)은아조적습니다 그러니까 쌀과비교한다면 서로의 장단이 잇으니 쌀보담 포도당이 만흔 대신 쌀보담담백질이 적습니다.

지방이적은것도

험으현이오나 쌀이라고 고그마보담 더 만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쌀대신 고그마를 늘먹고 지내더라도 못지낫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선 서양사람으로서 일백오십일풍안이나 고그마만 먹고 산예도 잇답니다. 고그마 백몸메의 영양가치는사백이십카로리인데 백미는 오백십삼카로리요 현미는 삼백팔십삼카로리입니다. 고그마가 백미보담은 못 해도 현미보담은 낫습니다.

×

고그마에는 심 즉 섬유(纖維)가 만허서 그것이

창자를자극하야

가지고 대변을 쉽게 보도록 맨듭니다. 고그마는 결코 불소화물이 아니라 도리어 변비에 약으로 먹어조흔것 입니다. 단지 부인네의 몸에 특별히 조타는것은 아즉무슨까닭인지 잘 모르겟습니다.

포도당이 만허서 맛이 다니까 그저 조타하는것이 아닐까고도 추측됩니다. 그러나 고그마의그 실은 창자 안으로 들어 가서는 세균(細菌)을 만나서 발효(醱酵)되기때문으로 까쓰가 만히 생기게 됩니다. 고그마를먹은뒤

배가불룩해지는

것도 그런까닭이요 도방괴가자즌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하여튼 고그마를 먹고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남의아페서 실례를 하게 됩니다.

×

그뿐더러 고그마를 만히 먹을사록 몸에 잇는 염분(鹽分)이 업서집니다. 그것은 고그마속에 잇는 가리(加里)라는 성분이 염분을 구축해 버리는까닭이올시다. 그러니까 고그마만을 먹고서는

견디기가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잇는염분이 업서질사록 몸이 피곤해저서 기운을 못차리게되는 까닭입니다. 자연히 고구마를 잡수신후는 짠것을 만히 먹게도 되거니와 애초부터 잡수실때 염분을 한께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만 한다면 고그마는 간식(間食)으로나 상식(常食)으로나 아조훌륭한 물건입니다。

지는 마음의원인 즉신경질이 되원인을 엇샐일 그다음한가지는 내분비적방면(內分泌的方面)의치료 또한가지는 수술적(手術的)방면의치료입니다。 맨처음것은 암시요법(暗示療法)신경분석요법(神經分析療法)으로되겟습니다 그다음것은 『홀몬』제의 내복또는 주사로될수잇고 맨나중것은자궁위치가 변해다든지한것이원인이니까 수술을바더야하는것입니다

家庭醫學

림질은아니요

問 실칠세의녀자이온데 한번 도눕더단이정으얻엇습니다 그런데 방묘시에압흥지는안호나 자조마려웁니다 수음변행합니다 혹 림질이나아닐까요 혹그럿타면병원에단이는것이 조흘까요 약을 사다복용하는것이날까요 약은엇던약이조흔는지 잘하교하여주시요 (市內一讀者)

答 림질에감염될만한 긔회가 업고 도동통이나 배농도업다하오니 림질은안인듯합니다 수음은 어느정도인지모르오나 그해라고말할수도업고 소변이자조나오는것은 습관에의하거나 또는 내과적 질환이잇는듯합니다 과히념려할것이업시 경과를주의하야보십시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十二日(木曜)

◇午後六時 童謠와少女劇 一、童謠 1 齊唱 비누방울 2 獨唱 물새발자욱 3 齊唱 실비 4 獨唱 물오리한쌍 三、少女劇 『여호속』全一景 獨立門主日學校兒童 指揮 柳基興

◇同六時二五分 우스운이야기의밤 오음의心理 李晶燮

◇同七時三〇分 趣味講話 오음의大學 金尙銘

◇同八時 音律 靈山會像中 女琴 李彦稙 洋琴 李承焕 笙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繪裁弼 杖鼓 李章夏

◇同八時三〇分 平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興邊歌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開城난봉가 七、방아타령 白牧丹 鄭錦紅

◇同九時 連續講談 千蘭의狂 (二) 庾秋濟

十三日(金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赤壁歌 朴貞姬 鼓手 姜太弘

◇同三時一五分 主婦時間 偉人과家庭 金英春

◇同六時 趣味講話 科學이야기ABC

◇同六時二五分 古代人의꿈 李眞圭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育과圖書 金晋燮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유산가 三、선유가 四、양산도 郭山月 郭明月

◇同八時二〇分 (東) 吹奏樂 一、小組曲…드뷔시-作曲 (가) 배에서 (나) 行列 (다) 베누엣트 (라) 舞踊曲 二、波瀾士風舞曲 『音樂會의프로네-즈』…추리-느作曲 陸軍戸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河田國一

◇同八時四五分 演談 感孝代命 玄哲

十四日(土曜)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合奏 一、英雄行進曲…우니데르作曲 二、舞曲…마넨테作曲 三、밤의그림자…프가-란띄作曲 四、『椿姬』拔萃…빼르띄作曲 五、馬夫의노래(西班牙民謠) 六、거리音樂(西班牙民謠) 京城맨돌린·앙상블 指揮 高橋功

◇同三時一五分 趣味講話 코(鼻)의로맨스 醫學博士 裵日永

◇同六時 아코-듸온과실로폰 一、山谷間의등불 二、쿡쿠-왈츠 三、봄은날개 四、月光千金 五、國境의거리 六、양산도 아코-듸온 金文星 실로폰 韓慶南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朝鮮日報經濟部長 申泰翊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喜好博士의生日을마지하면서 萬國에스페란토協會朝鮮委員 張錫合

◇同八時 流行歌 一、뽕따러가세 二、償抱千絲 三、故鄕 四、靑노새 五、못노래 伴奏 DK管絃團 盧碧花

◇同八時二〇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卞眞紅 洪小丹 大笒 朴鍾基

◇同八時四五分 라디오 드라마 美人의 金단추 全二景 配役 李英姬…崔康善 李英春…金純英 朴梅花…韓惠心 張智淵…金海雲 金澤烈…吉七水 裁判長…李流星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曆

十二月十三日(金)
十一月建戊子(大)十八日
癸亥·水·亢·閉
●大雪八日(舊十一月十三日)
●冬至晝二十二日(廿八日)

새색씨병

출가하고나서

생기기쉬운병

그대로두면『가정비극』

두내외가 보람잇는 생활을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피차에 건강해야합니다 아모리 살림사리가 구차하다할지라도 내외몸 튼튼하면 엇더케해서라도 사는수가잇슴즉 재산잇고 병으로 지내느니보다 이편이 행복이라고 볼수잇습니다

◇

그럼으로 결혼할념은 몸을 튼튼히 해가지고 결혼해야합니다 튼튼치못한몸으로 결혼을하게되면 어떤일이 생기느냐? 이러고저러고한 다른병은 그그만두고 소위 신혼병(新婚病)이란것에 걸리는데남자편보다 녀자편에 더만습니다

그럼 신혼병에드는것이 무엇무엇이냐? 드러 보시랍니가?

◇

이름부터 그럴듯한 신혼성신경쇠약(新婚性神經衰弱)이라는것이 잇습니다。 새색씨가되면 고된 시집사리를 하건안하건 『아가씨의자유』를 빼앗기게되어 남편의몸과 마음의 간섭을 밧지안코는 사러갈수업는 그러한 구속을 밧게됩니다그럼으로 마음과로운 일이지요 여기에서 마음약하고 그야말로안존한 새색씨는 신혼성신경쇠약에 걸리게 된다는말씀입니다。

이병의증세는 몸이피곤해지기쉽고, 가슴이두근거리고, 숨이갑부고, 대단치안흔일이 마음에걸리고, 남들이 자기를비웃는것갓고, 우울 해지고, 혼자몰래 까닭업시울게도되고 문소리만 나도 놀래지고…하는것입니다 이병에 누구나다 한번식 걸리느냐하면그런것이 아니다 결혼전 본시부터 몸이허약 하다거나 신경이 약한분에게 잘걸릴것이 분명합니다。

그다음으로 대하ㅅ증인데 자궁내막염, 란소염, 자궁후굴ㅅ증, 수란관염(輸卵管炎)이 본시부터 잇는분은 말할것도업고 결혼후에 생기는수가 잇는데 자택 요법도할 생각말고 부듯불 남편과 의론해서 (절대로북그러워말고)병원에갈박게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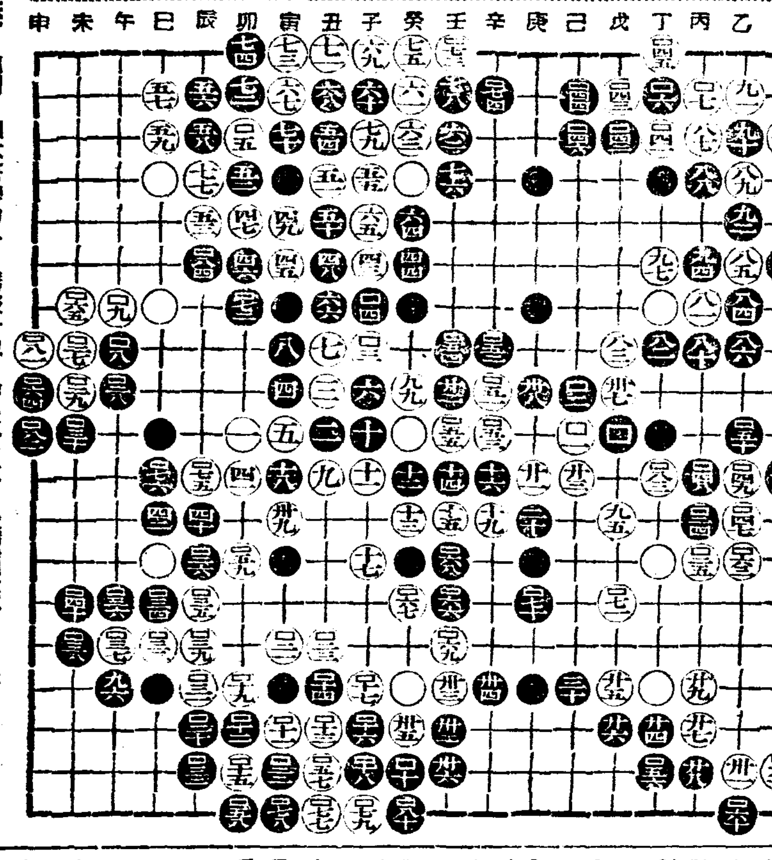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불감증(不感症)이란맥냥한 병이잇습니다。이병은 무슨일에 거정을만히하는성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丁奎春
黑六點置 李英鎬

○一六五 未의七
●一六六 壬의十四
○一六七 癸의十四
●一六八 壬의十三
○一六九 壬의十五
●一七〇 庚의十四
○一七一 戊의十四
●一七二 卯의七
○一七三 壬의二
●一七四 辛의一
○一七五 辰의十一
●一七六 巳의十一
○一七七 丑의十九
●一七八 寅의十九
○一七九 子의十九
●一八〇 癸의十九
○一八一 申의八
●一八二 申의十
○一八三 丁의十一
●一八四 辰의六



◇秦極文氏評 白이 加六將勢力을 腰絨하고 中央一區를 連繫創造하니 强弱之分은 漸在不言이나 黑이 差可進步면 的不至於此境矣리니 努力勝勝이어다 黑이 十四辰의 六은 修理가 相當하나 丑의 十九越點不及이 遺憾이다 勝負關係가 二一點에 懸隔한듯하니 終末이라도 泛然치못하리로다

短篇小說

惡夢 【十二】

咸大勳 作
夕影 畫

영자가 억센 원철이 품속에서 아츰잠을 깨슴땐 어느덧 동편창에 아츰해ㅅ발이 환히 비최고 잇섯다 바람도 자고 나린 비도 언제 개엿는지 열어제친 창넘어로 보히는 하늘은 유리가치 맑다。 한편 북그럽기도하고 한편 행복스럽기도한 감정속에 엽헤누흔 원철을 바라보는 영자의눈엔 아지못하는새이슬방울이 매치고잇섯다、 마-치 조흔보석을 길가에서 주섯다가 금방 그주인을 만나내주어야 할것처럼 잠만깨면 자긔집으로가버릴 원철을 생각할때 영자는 서러운 눈물이 북밧처오르지 안흘수가 업섯다비록 옛날은 자긔가 사랑하든원철이엿만 오늘날에잇서서는 남의남편인 원철이가 아니냐? 그려라면 남의남편과 한자리에서 하로밤을 지냇다는건 간음이아니냐? 이건 부도덕한 행위요이처럼 더러운일이 또세상에 어디잇는게냐? 영자의 마음은 한업시 괴로웟다 갑작히 눈시울기 뜨거워오고 가슴은 무슨 못바눌로 찌르는것처럼 아프고 저리엇다 다시 영자는 잠든 원철의 얼골을 드려다 보앗다 그 얼골은 여전히 평화로운것 가트나 꿈속의 원철은 자긔안해와 행복스런 이야기도하고 보드라운 빰을 부비기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영자를 롱락하고 잇는걸 너잡작고 이구경이나 하라고 두사람이 속삭이고 잇는것 가러서 영자의 마음은참을수업는 질투의불길이 타올르기도하엿다

『여보…무슨잠을 그리자요…』

영자는 히스테리칼하게 소리를 땍쏘면서 원철이를 잡어흔들엇다

『웅…』

『웅 이뭐요 무슨꿈을 그리꿔요…』

『웅…웨그래…』

원철은 곤히든 잠에서 깨여나 기지개를 펴면서 선잠 깬눈을 영자께로 보내엿다。

『직금 무슨꿈을 꾸엇서요』

『꿈은 무슨꿈!』

『웨 꿈을 꾸시구선』

『글세 꿈은 무슨꿈요! 곤해서 두벌잠이 드렷든데……』

『그럼 웨 잠을 깻드랫서요?』

『그저 깨엿섯지오』

『누굴 생각허구 깨섯지요?』

『생각허긴 누굴 생각해!』

『그럼 웨 깨섯드랫서요』

『새벽녘 바람 소리에 깻나부죠!』

『안애요 똑바로 말슴하세요 누굴생각하시구서 미안해서 깨섯죠?』

『온천만에요……』

원철은 그때야 영자의하는 말뜻을 알아들엇다는듯이 힘잇게 부정하엿다 그러나 영자는 그치친한 얼골에 흥분과질투의불꼿이 라는듯 상긔된얼골로

『참말을 하서요! 나 노엽지 안켓서요!』

하고 원철을 바라보앗다。

『온 글세 나두 결심하게 잇스니깐 그런게안요……그런걸가지구 갑작히 웨그래요』

『그려치만 난 미들수업는 사람이 안야요 난 몰라요…』

『걱정을말래두 그리는군요 모-든걸 내다 선처할테니깐 염려마러요』

『그래두 누가알어요 그전에두 그러케 철석가치 약속을하구선 싹 도라서 버리구선…』

『그러찬래두!』

『그러찬긴 무이그럿찬어요 난몰라요……』

『……』

원철은 어이가 업는듯이 눈을 어린 영자의 얼골을 치어다봣다 마-치 어린애가 가장귀여운 장난감을 깨치고 어른에게 어리광피며 졸르는듯이 그영자의모양은 천진스럽고 귀여워보혓다

『글세 그리지말래두 내 모-든걸 다잘할테구 또영자를 영원히사랑한대두!』

『그러치만 그걸누가밋어요 난 몰라』

하고 영자는 그만 갑작히 서름이북밧친다는듯이 자리에쓰러저 흑흑느겨 울기시작햇다 영자마음엔 아-모래도 원철은 남의남편이오 다시도라오지안흘사내갓탓다 부질업시자긔 순결한몸만 바친것가터서 그게원통하엿다

空前の大奉仕 大懸賞

白熱的人氣!

懸賞課題 ?

거츤살결에、벗걸은데、더우에업는素肌美를增加하며化粧의基礎를創造하는東洋第一品〇〇クレーム를아십니까?

三百萬名様總當り

答案方法과用紙

クレーム의空函을그대로펴서裏面白地에다左의順序로記入하시라

一、〇〇クレーム
二、特別賞品中希望의一點
三、住所와氏名

答案用紙는近處販賣店에屆出하여주시오

愛用家諸位의便宜를도읍기위하야販賣店에서는答案을一束하야本舖에보내여드리오니郵稅도들지안코便利합니다

萬一本舖에直接郵送하실際는十五瓦(約四匁)까지三錢切手를貼付하시오。未安하오나郵稅不足되면接受치아니함

答案은한분이몟枚라도可함、만흘수록當籤率이조흘것입니다

●〆切 昭和十一年二月末日
●發表 同年三月末日新聞紙上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一丁目四番地
平尾贊平商店

更に更に下記の大賞品が當る!

ツバメ賞(特別賞) 五〇〇名様
特製茶簞笥 壹個
羽二重掛蒲團 壹枚
特製新型パラソル 壹本
寶石入帶止 壹個
婦人用新型腕時計 壹個
旅行用双眼鏡 壹個

富士賞(特別賞) 五〇〇名様
眞珠入金指輪 壹個
携帶用ミシン 壹臺
特製羽二重片側帶 壹本
銘仙座蒲團 壹組
總桐胴火鉢 壹個
少年用自轉車 壹臺

サクラ賞(特別賞) 五〇〇名様
姬鏡臺(化粧具セット付) 壹臺
レート特選御召 壹反
高級置時計 壹個
折疊式乳母車 壹臺
婦人用レインコート 壹着
晴雨兼用洋傘 壹本
(以上ツバメ賞、富士賞、櫻賞中에서希望의品一點을撰定하여주시요)

レート賞 一、〇〇〇名様
レート化粧料詰合箱 壹個

お奬め賞 一、〇〇、〇〇〇名様
旅行型レート粉白粉 壹個

愛用賞 三、〇〇〇、〇〇〇名様
流線型お化粧カード 一組
愛用賞은買上時에빠지여서上呈

憧憬의若肌를맨드러내는東洋第一品

レートクレーム
레-도크림

レートは生活の必需品! レート化粧料本舖 東京 平尾贊平商店

秋冬星象 ①

轉回된가을天體

—銀河는宇宙의基本建築—

安在鴻

×

下界의 사람들이 부즈런시밥분데 上界의 별들조차 쉴새업시 天空을 돌고잇다 일즉 慶炎이 갓지나간 七夕의 뒤를니어 金華山上 돌어오는저녁바람을 솔사이 바위위에가슴들어 바드면서 여름밤의星象을 觀測하노라고 버정대엇더니 이사이는벌서

朔風 이 나무 그레를어워를듯기는 겨울人밤이다 그적게번적이든 大角星과전갈(蝎)의 앙가슴을이룬大火(心大星=안타레쓰)星이 어느덧 西天의저아래로 잠겨넘어갓고 北山의 꼭대기에 아즉도 뚜렷하든天熊座인 北斗七星도 거의그全貌를 白頭山넘어 넘어로 감추어버려 마치 英雄的인 巨擘의 人物들이 하나식둘식凋落된 다음인듯 一段蕭索의情緖도 자어낸다 枯淡秋月 씩처다한 自然의景象에서 흥은 天地造化의 秘跡을 正觀할수잇는바 이지만 割拠하여진 드물은 星象은 觀測家로 가을하늘의 쓸쓸함을 군소리하게되는것이다 지금은 기픈겨울이라

가을 하늘을 이약이 할이이 미지난 말것지만 가을하늘을 장식하는별과별들이 아즉도余的으로 남어잇스니 초저녁에 天井의별들을 보아살피려면 지금이도리어 알마즌편이다 다만 벌서 보름달이 나날이 밝어오니 月明星稀! 잔별의 깜으라뎀이 찾기에 애씨움뿐이다 向日(十一月二十三日)嚴威寒村에서 보매 어둔밤 맑은하늘에「황랑」인 南斗가 오히려 西天의 銀河끄테 明朗하게光芒을노흐니려니 서울의 烟霧는 그조차도이미 보일락말락 西鮮의뒤로 아지리고잇다

×

銀漢은三更이레 梨花에 月白이라 땅에는꽃 하늘에는별! 별의

魅力 이 꼿마보지안커니와 별나라에 번듯이 둘러잇서 莊嚴한 帝王的存在로되어잇는것은 銀河이니 銀河는 宇宙間 맨들어진者中에 大大的地位와 動態를 가진 者이오「大宇宙의 基本建築」으로 되는者이다 七夕節에 農村의 뜰과 아들들이 草席펴어 마당에 누을적에 銀河의 휘하고 웅성구즌 개人기슭이 입시울에 마주다허 흘아가면 百中날이 하마지나가고 햇쌀밥에 새로운 가을이 닥어와서 오늘날의 世界에 즐거운 철이 오는것이라고 農家鮮朝에는 上代부터 일러오는 鄕土傳說이 각시별 함아비별 의 支那的인 聚會說話와 어울리어 한참 이약이되는 바이지만

南北 으로 돌려든 여름의銀河는 벌서 東西로 곳바로서서 각시별 함아비별이 아즉것 西紬에 멈울러잇다 가을의銀河는 여름의그것보담 되우 쌀쌀하지만 그럴은듯 각가운듯 노픈듯 나즌듯한 自然의도섭은 變함업다 科學의 메ー쓰에 머리가 구드러진 觀念있는 星學者로서도 그神秘스러운 大衆像의 아메는 언젠가 고개가 숙어저 잇는것을 깨닷지 못하엿다고한다

×

大하ー시엘以來의 發見에 依하면 이天河야말로 宇宙의 本體인者로 그宏衰는 即宇宙의 廣衰와 同一言意라고 까지한다 近世의

研究 로는 푸른별의大多數와 그위에도 新星 變光星 高熱星 星團 까스星雲 暗黑星雲 따위 天體의 가장 奇異하고도 야릇한者 모다이 天河에 모여 잇고 별과별들의 運動도 또한 모다 이天河와 密接하게 相關되어 잇다 今日吾人에게말하는바 天河의 延長은 東西南北 대강이 三十萬光年(세플레說)이오 宇宙의 神秘는모주리 이대國속에 싸히어 잇다고한다「답은기前 아름답게 개인밤의詩에 고요한속에 나는 現擧上의 돌라운 豪直과 宇宙의 엄청스러운 威力도 닛고서 差恥의반작대는 속에서 오즉 옛이약이의 아름다운만이 자꾸자꾸 생각난다。그때에 나에게는 어름의太陽——이것들도全으로도 이空間을 비춤에는 無力하다——으로 이루은 이엇칭나는 宇宙界은 업고서 도리어 이 반기울한하늘의개울」만이 겹처이수다。보이는것은 그光彩나는 개울의 울죽입、그기슭에 굽니는雲霧、그리고는 가을바람에 나붓기는水草뿐。하ー얀 각시별은 그별과별의 빗나는 베틀우에 잇고、소는 마즌기스리에 풀을뜻는다。그리고 가만히나리는 찬이슬은 할아비가 저웃는 사아때의 물부스레기인가?

學藝

乙亥年의創作決算

朝鮮의作家는어데로?

—轉形期의一作家로서의小感—

⑤ 嚴興燮

그러나 그러한 多彩色인 素材에서 主題한것만이 無條件하고 조흔 結果를 가저오는것은아니다

作品에나타나야할 生新한 新鮮한이데올르기——積極的인生活에의

久遠 가한 鬪爭的要素가 甚히稀薄한 缺乏된 近視眼的作品에그처 마티 마음것、힘것正當하게 뻗고 자라지못한 暗室속에서 자라나는 花草와가튼畸形的現象을 볼수잇는것은 비단今年뿐만에 限한게아니라 昨今數年來로 나타난現象이다。이는 急激히變한時代的情勢와 社會的情勢에 起因한것이라볼수도잇겟지만 過去에 너무도치우첫든 政治至上主義가 가저든誤謬에서 解脫되것가든今日 또 解脫되지안흐면안되게된 今日이가지고잇는 너무 分散的인無秩序와 無軌道한 無反省的이기쉬운 放縱性에 보담만흔原因이潛在한것이안일가

勿論 創作에잇서서 槪念에사로잡히거나 公式에 억매여서는 안된다

그러타고 槪念과公式을 全然 내버려서는안된다 내버려야할것은 죽은槪念과죽은公式을말함이다。(산槪念이란 生新한이데오르기——를말함이요 산公式이란作家自身이가진 技術의獨創性을말함이다)

作品에잇서서의 生新한 新鮮한 이데오르기——의擁護는 決코그作品의

藝術 的價値를 低下하지안는다

우리는 이데오르기——를일코 藝術만을어들것도아니요 藝術을 떠나서이데오르기——만을 어덜것도안인것이다。

한歷史的인 瞬間에서 瞬間으로 過程하는 그過程的인 情勢가至 推勢로 말미암아 變轉하기 쉬운 危期에 直面하면 直面할수록 그가진바 傳統的인 이데오르기ー의 果敢한 擁護者가 되지안허서는 안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今年 여름 巴里에서 開催된 文化防衛國際作家會議는 우리들에게 만흔 刺戟과 示唆를 주고잇는바이다。

좀더 作家로서의 大膽한生活 좀더 놉고 넓고 깁흔 生活의 體驗者가 되고십흔것이다、

그러나 現下朝鮮의 모ー든情勢는 作家에게 그러한 餘裕를 容許하지안는다。

첫재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장 親愛하는 讀者層부터 얼마나한 情熱과 意氣를가지고 우리들의 作品을 支持하고잇는지 그것부터 큰疑問이 안일수업다

讀者層의 獲得은 文學發展의 큰要件이다 現下眞正한

意味 의文學讀者보다도 娛樂的인講談、野談、獵奇類의 讀者層이더 만타는 事實은 結局아즉도 우리들의 文學이 大衆속으로 完全히 浸潤되지못한 反證인것이다。

그러타고 大衆과迎合하란말은 아니다 大衆의 意識水準을 現在에서보다 보담놉게 끌어올니는데 우리의全任務가잇는것이다

그러기爲한 手段으로서의(作品이正當한 코ー스로써 마음것 發育되지못하는 現實이기때문에 諷刺文學、暴露文學、諧謔文學等의 現階段的意義가 잇는것이다

要컨댄 今年도 如前 昨年의 連續에 지나지못햇다

進步的傾向派作家는 進步的傾向을가진때문에 非進步的傾向派作家는 非進步的傾向을 가진때문에 그作家的狹路、窮路에 똑가티 빠저버린것이다。

朝鮮의作家를 眞正히 敎導者누구인가?

作品을 사줄 讀者인가? 創作方法을 敎示하는 評論家인가?

아니다 그들이아니다

다만 作家自身인것이다

自身 의努力인것이다 狹路를나와 좀더 廣潤한步調로 作家的行進을 開拓하고 戰取하려는 意慾的인 作家自身의 果敢한 努力에잇는것이다。——(乙亥歲暮)——

【訂正】本文第二回分 最終行「充分이 發表식혀야 할것이다」는「充分이 發展식혀야 할것이다」의 誤植。

―季節의沈默―

海外短信

世界一週汽船속에 珍奇한大學

【뽀스톤發聯合郵信】故모나코公의註文으로 一九一一年 佛國서 建造된것을 그後一時는 南獨帝월헬름의傭船이되얏든 蒸氣帆船 히로뎀號는 二十數年後를 지난 이지음「海上大學」으로 更生되야 世界一週의 길을나섯다 히로뎀號는 總噸數一二三六噸、艇長二九一呎、速力十七節의 옷으로서 뽀스톤市헨리・하리스氏의 所有엿섯는데 最近紐育의 著名한大學旅行協會에 傭船으로한것이다 目下뽀스톤서 칠을갈고 修理도 하는中인데 明年一月中 全部완을떼어 二月에는 紐育을 떠나가지고 全世界의主要한港을 歷訪하리라고한다 船中에는 젊은男女大學生數百名及 敎授十數名이타고다니며 海上에서 學科講義를 行하야 宛然「海上大學」의 奇觀을 묘할모양이다

海西紀行 ⑥

朴花城

무슨齋이니 무슨齋이니 하고 물으기조차 까다랍고 四角난그런 嚴肅한 名稱을 버리고 聽溪堂이라는 事實的이오 詩的의 書齋일홈을 지은栗谷은 九曲을 지은 道學者로서의 栗谷보다며 몇倍나더情다운 느낌을 내게줍니다。

나는 聽溪堂뜰에서서 고요히 귀를기우립니다 길고긴 시내의 하필 이자리에서 들을수잇는그 물소리라니! 아까 上流에서 듯든 물소리는 시원스럽고 세찬듯 하엿것만 이聽溪堂의 물소리는 은근하고 부드럽고도 아기자기하게 돌돌그리는것입니다 이 긴 시내를 通하야 가장 물소리의 아름다운 이자리를택하야 聽溪堂을 지은 栗谷은賢明한분임에 틀림업습니다。

그러나 차고 맑고도 가만한 이 시내물소리는 그에게 보다 긴ー瞑想의 시간을 주어슴에틀림업습니다。

나의 생각은 幾百年前으로뒷걸음을 칩니다。만일 어떠한가을밤에 栗谷이 이 聽溪堂에안저서 오랜瞑想에 잠겨잇다가思君憂國의 忠情이 更發하야 을적한마음에 竹窓을 열어제처다하면그날밤 조으는듯한 나즈막한山들의 달빗홉안은 아련한 姿態와 조각달을 실코、흘너가는 이시내의 은은한 속사임이 얼마나 정답게 그의 복잡한버리와가슴을 잘어루만저 주엇슬까? 그러컬내로 栗谷은일즉 校理니 弘文館 直提學이니大司諫이니 하는 벼슬을 구지 구지사양하고 몸을 숨겨서 이 山水에 惑하지 안헛든가?

만일 저山들이 저럿듯 優雅하지말고 우악스런 險山이 되엿다거나 이시내의 물소리가이러틋 꼽지말고 千丈이나 떠러지는 瀑布가되여 晝夜로 기운차게 聽溪堂을 위협하엿든들그는 그다지까지 政界를떠나 自身의休養을 꾀하려하지 안헛슬것이오 모름직이 壯嚴하고 感激的인 瀑布의 激勵를 바다自進하야 國家難境에서 盡身心力하지 안헛슬것인가?

부질업는 생각에 빠을 붉히면서 나는 시내가로 나왓습니다。올습니다。물소리의 잔잔하고 부드러운 까닭을알엇습니다。여기에는 큰바위와 굵은 돌덩이가 업고 자그마한 돌맹이들만 이리저리 물의 가는길을 만드러주고 잇스니 구타여 물이 큰소리를 치고 바위에 부데치거나 건너뛰여 넘어가지 안터라도 겸손한 태도로 제길만 차저서 졸졸그리고 흘너가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소리는 돌맹이따라 나는소리지 물자체가 그러케 듯기조혼 노래소리를 낼수는 업는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물소리라하야 물만을 찬양할뿐이지 물속에 잠겨 남몰은 사명을하기에 제몸을 닳니고잇는 저돌맹이들을 장하다 가려보적이 잇슴니까。

×

淸雅한 물소리를 끼고 萬子를 압세워 깁흔 엇고 落葉만이 길이넘게 싸힌 산비탈을 더듬어 올나가는 나는 躡仙臺에 仙人을 만나보려 가는듯한 新鮮한 心境에서 자못 황홀한 瞬間을 가질수 잇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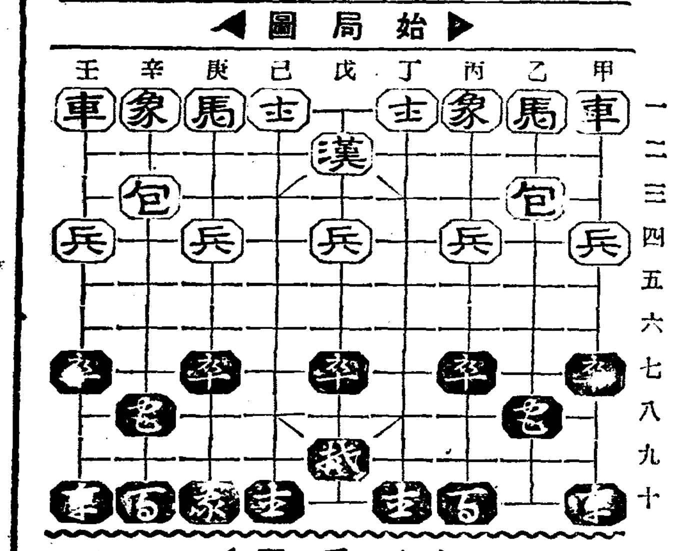
어제밤 비에 저젓는지 오늘새벽 이슬에 저젓는지 축축 하게저저 잇는 落葉에 발이 푹푹빠지면 발바닥 으로는 산뜻한 물기운이 숨여듭니다。바위를 안고치덩굴을 잡고 감새과실나무를 끼고 돌아 올나가는 길에서 나는 얼마든지 落葉과 함께 섞고잇든 銀杏이며 밤이며 대추等의 果實을보앗습니다 이 야말로 原始林을 聯想식이는 동산이아닙니까?

將棋名手對局譜 (一)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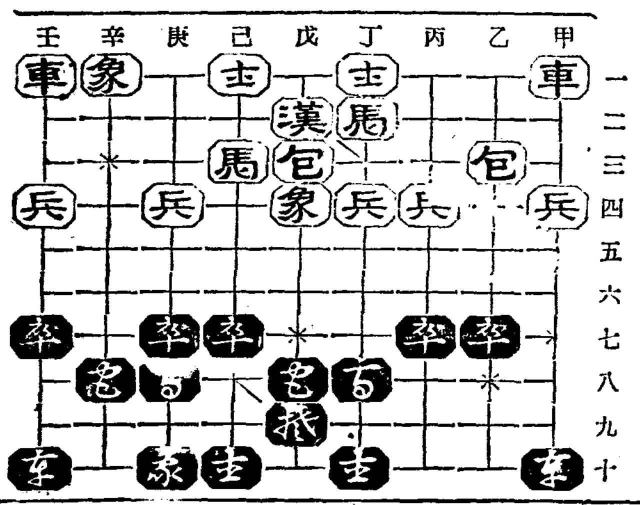
李在鳳 漢 丁奎東 手先楚 減一象

◀始局圖▶



◀十手圖▶

甲七卒—乙七 庚一馬—己三 丙十包—丁八 辛三包—戊三 乙八包—戊八 戊四兵—丁四 辛十包—庚八 丙一象—戊四 戊七卒—己七 乙一馬—丁三



新民謠의再認識

—아울러日本民謠運動의昨今— (2)

金思燁

過去朝鮮에잇서서도 文學을 云謂하는이는 남의歌謠인 詩經은 떠업는것으로 愛之重之하엿건만 우리말로된 歌謠는 詞俚하다는 理由下에 排斥하엿스니 이事實은 그들이詩經을 金科玉條로重要視한것은 正當히 그의眞價를 認識하여서 그러하엿다기보담 古代의한「民謠」인것을 漢宋의 儒學者가 歪曲하야 別別訓詁를 加해서 도로혀難解하게만드러 詩의本領에 背是됨이 多大한것을 모르고 도로혀 그一見絢爛한 粉칠에만 魅惑한데 지나지못하다고할수밧게업다。

近來에와서 朝鮮民謠에 興味를가지고 이에着眼하야 散逸히 흣터저잇는 口傳民謠를 蒐集하여 硏究하는이가 더러出하엿스나 그들도한그動機가 硏究의 한方便物로써 思潮의推移 或은 方言의變遷 習俗等을살피려는데 不過하고 民謠의其本質的價値를 究明하야 意識的으로新民謠의創作에까지 손을대이려는 사람은 殆無하다。

新民謠란 在來의 傳承民謠에 對하야 個人이創作한것이라는것은 既述하엿거니와 元來民謠는 그自體가 個人의 創作을 기다려 發生되는것이 아니고 그鄕土를素因으로 해서 그鄕土의 民衆이 共同으로지은 말하자면한 共同詩集이며 그들의 精神의蓄積 그들의 喜怒哀樂 生에서死에이르는동안의 內的生活의 影像이니 갓난어린애기의 첫우름소리와도 갓다여 潑剌한 心情의부르지즘이 드러나잇고 天眞스러우며 素朴하야 純一無邪한것이다。

처음에는 한作家가 노래를지엇섯슬는지도 모른다。그러나한번民衆으로 옴겨온後는 그原作者는 그노래속에 숨어버리고다만 歌詞와 曲調가 民衆의情好에따라 任意대로 불리워지며귀에배이고 다음世代로 옴겨가는 가운데 自然洗鍊되여 漸次로完全한것이된다。그리다가 그社會가變하고 傳說이 달러지면 그에따라 民謠의形態도 變해지며 共前民謠는 過去의한詠嘆에 지나지못하게된다。그러나 이사이에 이저서는 안될것은 한때에生生한 民謠가 時代에따라 衰微하엿다고 그民族의 精神까지고와 追從하야 變해젓다고생각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過去에偶發文化는 比較的社會各層에까지 徹底하엿것만 그것이도로혀 朝鮮民謠의 特質을 뚜렷이뿌리깁흔것으로 形成하엿스며 이의發達에拍車를 加한것이라고 아니하엿든가?

假令 어느것이든지조흐나 婦人民謠의 한首를어더서 再三吟味하여보자 비록 詩의見地로서만 그것을 評價하려는이는 그 表現上의 技巧에잇서서 稚訥하고 조野卑하다는 瑕疵를드러못맛당해할것이나 그너무도 哀切하고 切迫한 心情을 或은 古樸하게 多恨하게 或은 修飾업시 平明히 表現하여 어느듯 呼吸이 그에따라 高調되여 새삼스러히 三嘆을 마지안흘것이다。萬若 村婦女가 목을노아、哀憐한 曲調에 부처부르는 소래를 드를수잇다면 그대는 눈물을흘려 感激해할는지도 모른다。

이럼으로 웬만한 詩人의 素質의 所有者는 이노래를 듯고 創作하려는 意慾이 減殺할수가 잇슬것이다。

이제 民謠가 制作되는 發生心理를 한거름더드러가 考察해보면 作家는・늘 民衆일것이며 題材는 自己들의 넘치는 感情을 노래로 부르는것이라는것은 압헤말한바와가티 自明한 事實이거니와 이제 그 한例로 政治의 是非에 關한 民謠의 制作되는 心理過程을 더듬어 보면 大槪 이러하다。이제 爲政者가 民衆에게 言論에對한 壓迫을 徹底히 한다면 그들의 情意는 鬱血하게되다。그때 萬若 秕政이 頻出하야 더욱 民衆의 입을 封하면 一層 內攻的으로 深化한다。世上은 漸漸 騷亂해오고 人心은 不安하게된다。그 不安은 不平으로 變하고 不平은 愚痴가되고憤怒가되며 그것이 諷刺가되며 드듸여 그들의 입을밀려 民謠에까지 進展하게되다。非但政治에 對한不平뿐만아니라 道德에 不自由로 因한 戀愛의悲哀며 家族主義의 偏重에依한 家庭內의 虐待 盲從에對한 情等의 民謠에나타난 苦悶相도 內部에잇서서 여러가지不平이 鬱積되여 結局가서 民謠로化하고마는것이다。

城大學友會 交響樂演奏會

京城帝大學友會 音樂部에서는 오는 十五日(日)下午二時부터 市內太平通에 新築된 府民館에서 第十一回 交響樂演奏會를 열것다고한다

漢詩募集

題 迎春

押 生

限十二月十五日

(薄謝進呈)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新人을招請한다!!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小說**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에쓰시되 글씨를 또독히 정하게 쓰시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戲曲** —一幕以上三幕以內의것으로 쓰시되 글씨를 또독히 정하게 쓰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詩** —長短은 隨意로하시고 每人이 數篇式應募해도 無妨합니다 賞金—首席一篇十圓 次席一篇五圓

◇**時調**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民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童話** —술른이야기보다 김부고 기운날 아기를 쓰십시요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金—入選若干篇에 對하야 各篇에十圓式

◇**童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드립

注意 ①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하고原稿를 一切返還치안습니다 ②보내실때는「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쓰서야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白

黑風 【198】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복수(復讐) 8

왕한은 광동에 도라오뒤에될수잇는대로 몸일을 속히보고향항으로 도로가서 콜난이와 가티오랴 하얏스나 당의일로 말미아머 속히 떠날수가 업시되얏다 그리하야 조춤조춤 하는것이 사흘이 지낫다

왕한은 집에서 창순으로 더부러 콜난에게대한 이야기를하면서 아직까지는 왕한이가 창순와 결혼한 사실을 말하지아니 하얏스나 콜난이가 모르고잇거니와 며칠후에든지 콜난이가광동에 오는때에는 자연히그일을 알게될것이오 또는 왕한으로도 그일을언제까지든지 숨겨서콜난이를속이는것이 도리도아니오 필요도 업는일이즉 콜난이가 왕한의 결혼한 사실을알게되는때에는 어떠한 사태를이르킬까 하는것이 걱정하는 초사점이엇다 창순이는 콜난이가 만일 관계를안다면 제이부인으로 맛는것도 무방 하다는것을말하얏스나 왕한이는 콜난의 성격으로 보아서 남의 제이부인노릇을 하지아니할뿐이 아니라 사회제도상 폐해되는 점으로도 할수업는 일이오 첫재자기로서는 이세상에서 창순이이외에 다른녀자를 사랑할수가업다는 리유로 창순의말을 반대하얏다 정히 이러케 왕한과창순은 콜난의 정국에 대하야여러가지로 의론하는중이엇다

어떤 여관뽀이인듯한 사람이 왕한을 차저서 쪽지를 전한다 그쪽지는 피봉도 업는것으로외양부터 초솔하얏다 혼저말로

『누가 이런쪽지를 보냇슬까』

하는 왕한은 조금도 긴장치 아니한 기분으로 펴보앗다

『지금 방장 차에 나려서 여관에 드럿습니다 가서뵈옵지 못하오니 죄송하외다

이름은 아실뜻』

이것이 그쪽지의 내용이엇다 왕한은 그것이 콜난의 편지인줄을 알면서 콜난이가 어찌 기별도업시 돌연히 왓스며 왓다고 기별한 형식이 이러케 초솔한가 하야서 놀나고 의심하얏다 왕한은 조금도 지체하자 아니하고 그뽀이를 따라서 여관으로 갓다

왕한을 맛는 콜난의 기색은 한꼿 질긴것도잇고 독살스런듯도 하얏다 왕한은 콜난이가 어느기회로든지 자기의 결혼한것을 알고서 원한을 품어서 그러한가 하야서 더욱 미안하게 생각하얏다 콜난은 강작하는태도로 왕한을 마저서 대강 인사한뒤에 얼마아니되야서 술상이 드러온다 콜난은 술을 부어서왕한에게 권한다 왕한은 술을 먹어가며 그계제에 자기의 창순이와 결혼한말을하고 콜난에게대한일을 해결하야 버리랴고 쟁각하는중이엇다

『우리가 드렷든 향항의 여관주인이 총총해서 상서못한다고 문안해달라고 하더군요』

하고 콜난이가 말을한다

『예 고맙습니다』

하는 왕한은 심상히 대답하얏다

『그런대 그사람과 친하서요』

『친할것은 업고 그저 아지오』

『언제부터 아셧서요』

『한 삼년 되는가요?』

『어대서 아셧서요?』

『상해서요』

『어떠케 아셧서요?』

『어떠한 기회에 아럿지오 그것은 웨그러케 무르서요』

『그사람이 이상한 기회에 선생님을 안것처럼 말하기에 말슴이야요』

『이상한기회가 무슨 이상한기회여요 그말슴은 그만두고 다른말슴이나 하십시다』

하는 왕한의 기색은 이상하게 변하면서 대답하는 어조가 어색한듯 하얏다 왕한의 변하는 기색을 바라보든 콜난은

『그러면 그만두지오』

하고 다시 술을한잔 가득히 부어서 권한다 왕한은 술잔을 드려서 마신다 콜난은 품에서 십퍼런 비수를 끄내가지고 나는새처럼 달려드려서 왕한의목을 푹 찔럿다 푸른 피는 사방으로 튀여서 방안의 모든것을 물드린다 그찰나 공기는 음산하고 처참하엿다 인생은 악마요 사랑은 허무엿다

洋服은뭇보다스타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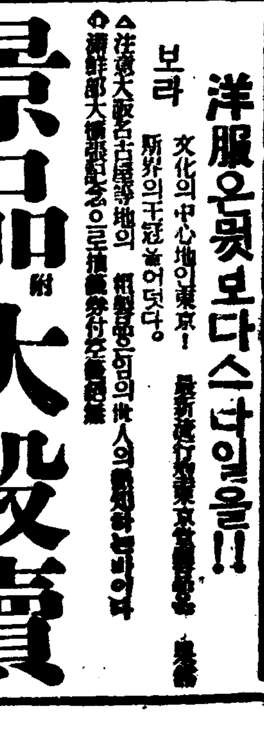
보라 文化의中心地인東京! 斯界의于冠을어더라 最新流行型東京樣式

◎在京大阪名古屋等地의 … ◎滿鮮都大…

景品附大投賣

●三千点限十二月末日迄 但賣切次第締切●

綾、紺、黑本ラクダ兩前オーバ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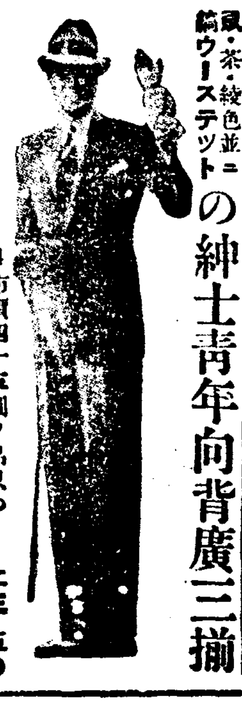


注文品〔裏ハ本朱子 袖ハ本絹入〕 ▲片前ハ一圓安
1 市價五十五圓ノ品只の……二五・五〇
2 市價四十圓ノ品只の……二二・九〇
3 市價三十五圓ノ品只の……一九・七五

鼠・茶・綾色並ニ縞ウーステッドの紳士青年向背廣三揃

注文品〔裏本アルパカ 袖本絹入〕
4 市價四十五圓ノ品只の……二三・五〇
5 市價三十八圓ノ品只の……二〇・〇〇
6 市價三十圓ノ品只の……一五・九〇

一般實用向の背廣三揃紺、黑サ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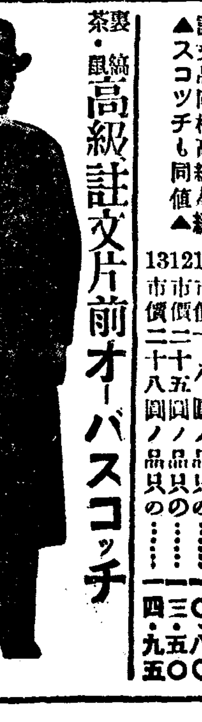
注文品〔裏舶來アルパカ袖本絹〕
7 市價四十七圓ノ品只の……二四・九五
8 市價三十九圓ノ品只の……二〇・七〇
9 市價三十圓ノ品只の……一六・〇〇

高級既成品背廣三揃紺、黑サージ

註文品同樣高級既成縫 ▲スコッチも同値▲
10 市價十五圓ノ品只の……八・五〇
11 市價十八圓ノ品只の……一〇・八〇
12 市價二十五圓ノ品只の……一三・五〇
13 市價二十八圓ノ品只の……一四・九五

裏・縞・茶・鼠 高級註文片前オーバスコッチ

注文品〔裏舶來本朱子袖本絹〕 ▲兩前ハ一圓高
14 市價六十圓ノ品只の……三二・〇〇
15 市價四十五圓ノ品只の……二三・五〇
16 市價三十五圓ノ品只の……一七・八〇



滿洲・朝鮮服用本ラクダオーバー

本ラクダ紺・黑 スコッチ鼠・茶 既成 兩前オーバ 裏本朱子袖本絹 兩方共同値

特價 17 一五・〇〇 18 一四・五〇 19 一三・〇〇 20 一二・〇〇 21 一〇・〇〇 22 九・〇〇 23 八・五〇 24 七・九五

注文品〔紺、黑 朱子裏 朱子袖本絹〕
25 市價五十圓ノ品只の……二九・五〇
26 市價四十圓ノ品只の……二三・〇〇
27 市價三十圓ノ品只の……一八・〇〇
28 市價二十七圓ノ品只の……一五・五〇

注文服同樣の朝鮮服用オーバ既成品大奉仕

但本ラクダ、裏ニアルパカ或ハ本朱子袖ハ本絹入、滿鮮用으로高級ラシャ도同價이니注文時種別하야下命하시라

29 32 只の……一四・五〇 一〇・〇〇
30 33 只の……一三・〇〇 九・五〇
31 34 只の……一一・〇〇 六・五〇

御寸法書解圖通リ尺八(鯨)

注意 但既成品이라도寸數及全身長、肥瘦、瘦瘠、職業、年齡等記入한後當店에一任하여주시면適當品을送呈

抽籤景品
一等 コロムビア蓄音器ポタブル一臺式 五名
二等 十八金側딱딱時計一個式 十五名
三等 春秋用三揃洋服一着式 百五名
四等 スプリング一枚式 百卅五名
五等 西洋カミソリ一個式無漏進呈 三千名

抽籤券은一枚式贈呈함 抽籤發表昭和十一年一月廿日頃 抽籤은東京各新聞社員들의立會下嚴正抽籤함 景品引換昭和十一年二月一日부터十日까지其後는無効

▲注文案內

御注文時는住所、氏名、注文書等은正書로알기쉽게明白히記載要顧 送金은第一安全한振替東京三九三一五番 小爲替切手는一割增加一枚十錢以上자리를願함 代引이라도形便에따라조合니다。注文服은全額의半額以上既成品은送料一圓五錢送金하지안흐면謝絶합니다。

▲代引送料一圓五錢也 ▲先金注文送料當店負擔

全品絕對責任付不合迅速返金品替自由

投賣임으로事務難雜하와カタログ請求斷謝함

東京堂滿鮮部

發送部 東京市向島區寺島町東三ノ十六
工場 東京市神田區
振替東京三九三一五番

精米所休業狀態로 穀庫仙掌地方閑散
正租强制檢查의影響을바더 二百餘勞働者極困境

【牙山】충남 아산군(牙山郡)선장(仙掌)지방은 원래 해륙상(海陸)으로 곡물운반이 편리 하여 수십년전부터 곡물상들이 모여들어 번래로 번창 하여오던바 금번은 정조강제검사등이 실시되여 당업자들은 만흔타격을밧어 도저히 영업을 계속할수가 업서 부득이 휴업상태에 잇으게되여 일반미곡상들은 물론이고 이백여명노동자들이 각정미소에서 로동을하여 그날그날을 살어오던바 졸지에 휴업이되게 되엿슴으로 압날에 살어갈 길이 망연하다하야 매우 우려된다고한다

晋州、泗川、山淸의 密酒矯正會發會

【晋州】진주세무서(晋州稅務署)관내인 진주、사천(泗川)、산청(山淸)삼군의、주류밀조교정회설립발회식(酒類密造矯正會設立發會式)을 지난 팔일오후한시、진주제일공립보통학교강당(晋州第一公普講堂)에서 관민유지 이백여명 참석하에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바 당일발표한 삼군합계 밀수검거건수를 년도별로보면 소화륙년에 삼백오십오건、동칠년에 사백사십사건 팔년에 륙백오십오건 구년에 구백칠십삼건 금년은 십일월말일까지 일천삼백십오건으로 수자적으로 보아 매년 놀라운증가를 보이고잇는 현상으로 금후 이운동의효력이 얼마만큼 될른지는 의문이나그러나 각방면의 기대가 자못크다고한다

糧棧街移住同胞 八十戶에撤去令
當此嚴冬에異域에서갈곳업는 七百餘同胞前途暗澹

【撫順】무순량잔가제방외(撫順糧棧街堤坊外)는 잡초가 욱어진 황무지이엇는바 주택난에 헤매이는 동포들이 삼년전부터 한집 두집 토막을 세우기 시작하여 현재는 팔십여호의 조선인촌을 건설하고 그날 그날의 품을 팔어 겨우 생명을 보존하여가는 칠백여명에게 지주인 대련성포토지건물주식회사(大連星浦土地建物株式會社)에서 도시계획(都市計劃)을 하겟스니 전부 집을 허러가지고 철거(撤去)하게 하여달라고 무순경찰서(撫順警察署)에 탄원서를 제출하엿는데 경찰서에서는 명년 삼월까지 전부 가우 옴겨가지고 나가라고하므로 할수업시 쪼겨나게되엿다는바 어데가나 안주지(安住地)업는이역(異域)에서 헤매는 이주동포 칠백여명의 거취는 크게주목된다고하며 사회문제화 하여간다

長興郡各面에 無產夜學開設

【長興】장흥군 각면에서 농한기를 리용하야 문맹퇴치의 목적으로 야학을 개시하게되엿는데 일면에 사오개소의 야학을 설치하고 각보교의 선생과 군청、경찰서、면사무소、금융조합직원들을 망라하야 교수에 당케하기로되는바 야학기간은 륙십일간이요 교수과목은 한글과 산술 기타를 갈으켜주게 되엿다 이에대하야 문맹한 여러분은 이기회를 일치 말고 다수입학하기를 바란다고한다

공회당을 건축하고 그동리무산아동뿐만 아니라 그근동의 아동들을 위하야 학원을 개설하고 지난십일월일일부터 개원하고 의무교육으로 박윤보(朴允

慶南乾海苔海藻 檢查規則을發表 十日付道令으로

【釜山】경상남도에서는 도내서 생산하는 건해태(乾海苔)급 해초(海藻)의 검사를 각조합에서 하던것을 금년도부터 도직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중이든바 지난 십일부로 도령으로서 발포 즉일시행키로 되엿다는데 해태검사는 부산에 본소를 두고 하동(河東)에 지소를 두기로하고 해초(海藻)는 본소를부산에 지소를 통영(統營)에 두기로 되엿는데 소장에는 기사(技師) 지소에는 기수(技手)를 임명하리라하며 검사검정구역은 다음과 갓다한다

乾海苔部
指定區域
釜山府、東萊郡、金海郡、統營郡 以上釜山檢查所管轄
泗川郡 南海郡 河東郡以上 河東支所管轄

海藻部
指定區域
釜山府 蔚山郡 東萊郡 金海郡 昌原郡 以上本所管轄
統營郡 固城郡 泗川郡 南海郡 河東郡 統營支所管轄

江口近海에서 鯖魚豊獲

【盈德】경북영덕군강구항(江口港)은 동해안에서 유수한 어항으로 매년가을이면 성어기(盛漁期)로 입방경기가 활황이든바 금년은 불행히 가을이호수개월아 넘도록 어획이부진되여 당업자들의 곤난이 막심하든바 지난팔일경부터 고등어(鯖)가 잡히기시작하야 각계에 활기를띄운바 가격은 최고일미에 십전최하일미에 삼전이라고한다

春川地方酷寒 零下十五度

【春川】봄일긔와가티 다스하던 일긔가 졸지에 치워저서 지난십일아츰은 한란계가 별안간수러드러 령하십오도를 가르켯다

東內普校開校式【春川】

지난십일일 이십일일에 안가되

강원도 춘천군동내공립보통학교(春川郡東內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十一일오전중에 동내면사무소에서 신입생 칠십명의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오는 十八일에 동교가교사(假校舍)인 석사리(石士里)집회장에서 개교식을 거행할터이라고한다

西湖公普校의 授產物好評

【興南】서호공보교에서는 작년도에 도당국의 보조를 어더 수산실(授産室)을 건축하고 교직원여러분의 노력으로 실지교육에 힘쓰든중 명태어긔를 당하야 각지로부터 해교직업과에 당첨명물인 명난(明卵)의 주문이 살도하야 방금그수응에 대분망중이며 저들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실제사회에 몰녀나올 어린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조흔교육이라고 일반의호평이잇다

大元鑛山事件 言渡期日決定

【新義州】르보=수백만원에 달하는 광산을 싸고수년간을 소송으로 나려오든 의주군가산면방산동(義州郡加山面方山洞)대원광산(大元鑛山)광주 김윤황(金潤璜)등 네명에 대한 판결언도는 이십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개정되리라한다

奉天青年會에서 二重過歲撤廢運動 會員에게는半强制的施行

【奉天】지난오일 봉천청년회간부회(奉天靑年會幹部會)에서는 이중과세철폐운동(二重過歲撤廢運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엿다는바 시행방법에 잇서서는 동회 회원은 반강제적(反强制的)으로라도 철저히 실행케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선전삐라등으로 선포케되여 동회책임자들은 목하준비중에 분망하고 잇다한다

急迫한安木港의 火災罹災民救濟
郡民의一致協力必要

【江陵】강릉읍 안목항(安木港)대화재로인하야 생긴 이재자구조문제는 실로 시급을 요하는것으로써 거번에 읍주최로 이재민구제읍민대회를 개최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 읍、경찰서、군、삼당국의 련합으로읍내유지를 심방하야 구제금모집에 필사적 노력을 하고잇서 대체로 모집성적은 양호한편이나 아즉도 당초계획금액에 도달하려면는 전도가 요원타하야 혹한중에 먹을것、입을것을 못이더 떨고잇는 불상한 이재민들을 생각할때 실로 일각이라도 지연할수업는것으로 이문제는 오직 관청당국에게만 의뢰할것이 아니고 읍민과 군민전체가 각기 진력치야할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자진하야 경재를 희사함을 바람이 크다하는데 제이회로 의연금을 거출하신분은 다음과갓다

▲百五十圓式 劉明順 權重玉 今城彙吉 ▲百圓式 角田 李文律 藤有政一 同 ▲五十圓式 金俊勳 英紬組合 田中鶴一 ▲三十圓式 朝鮮釀業開發株式會社 川崎永樂館 ▲二十圓式 鄭復鉉 吉田由松 松尾 野田
合計金 九百七十圓

遠星興風會主催 濟川學院興旺

【東倉浦】안악군문산면원성리원천동 흥풍회에서는 긔보와가티

營口號襲擊犯逮捕 連累者檢擧에着手

【哈爾濱】지난삼십일 합이빈도외동흥가(哈爾濱道外東興街)이십팔호에는 토비용의자가 잠복하야잇든것을 들은 합이빈경찰청형사과(警察廳刑事課)에서는 일일새벽에 왕대장(王隊長)의 직접지휘를바다 수명이 전긔 장소를 습격하고 정부와 동금(同衾)하고잇든것을 체포하야 류치취조중이엿는데 이는 의외에도 작년여름에 송화강교통계(松花江交通係)를 침해하야 수로교통사(水路交通史)에 올을녀노코 당시일대센세이슌을 일으키고 잇던 영구호습격사건(營口號襲擊事件)의 일명으로 판명되엿다는데 동형사과에서는 본인의자백에의하야 동련루자(同連累者)들을 일망타진키로 각방면과밀접한련락을 취하야 대수색진을 펴치고 잇다고한다

脫線的斷髮獎勵
强制로削髮시키면서撮影까지해 宛然封建時罪囚取扱

【金泉】지난구일 경북김천군지례(知禮)시장에서는 그곳 경찰관이 유범자인 촌사람 두사람을 마장중에 끄러세워노코 강제단발을 시기며 일방이것을 사진까지 촬영하야 맛치봉건적 형벌자 취급을 하엿다는데 이가튼 선전방식은 그곳인사에게 크게호감을 주지못하엿다 한다

女子夜學開催 下碣婦人會에서

【長津】함남장진군읍내라면 누구나 엇지 문화사상에 매우뒤떠러진곳이줄 알고잇다 이 하갈시(下碣市)만보더라도 장진군내에 유수한 도시의 하나로서 현재 호수는구백여호 인구로는 근오천에 갓가운곳이나 교육긔관이란 예오르지 공립보통학교일개소 박게업다 이에공분을가진하갈부인회에서는 일부 녀성들의 문맹이라도 퇴치할목적으로 좌긔규정에 의하야 금번 십일부터 당지 하갈공립보통학교에서 녀자야학을 개최하얏는데 문맹에 굼주리든 녀자들에게 새로운소식이되여잇다

一、年齡 十三歲以上
一、授業期間 自昭和十年十二月十日 至昭和十一年三月十日

刑務所에도國境色
國境안이면못볼密輸群만도 二百六十餘名을突破

【新義州】신의주형무소(刑務所)에는 대만원으로 당국의 처치안혼 번민거리가 되여잇다는바입감자수는 일천삼백구십팔명이라는대다수에달하여 경성서대문형무소의다음으로전조선제이위라한다 남녀별로 나누어보면남자일천삼백륙십이명 녀자가 삼십일명인바 그중 일본내지인 남자 삼십이명 조선인남자가일천이백팔십륙명에 여자삼십명 외국인남자 사십사명에 여자일명으로 총계 일천삼백구십팔명이라는데 그중에 형긔를 정한자가 일천십팔명(남자일천구명、여자한명)로여규치 이백이십오명(남자이백오명、여자이십명)어린애 세명(남자한명、여자두명)이라는 순서로 어린애는 입감자가다리고 갓것이며 〃로여규치〃자수는 전부밀수자라는바 근래에 (밀수가 여하히 성행 한다는것을 알수잇는데 따라 타도시에서는 보지못하는 국경특수한 범죄로 주목꺼리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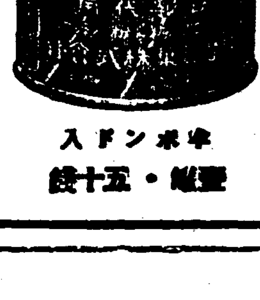
進行列車에서 飛下타가即死

【永興】본적을 함남신흥군 동상면에두고 금년봄에 당지에와서 어물상(魚物商)을 경영하는 김시호(金時浩)씨는 지난팔일에 서호진에가서 명태을 사서 긔차에다 부송하고 구일오후 칠시영흥착 긔차를 타고나오다가 술이취햇든지 도착한시간에 나리지 못하고 긔차는 떠나고마럿는데 영흥역에서 약오십간쯤 나가서 뛰여나리다가 면상에중상을입어즉석에서참사하엿다한다

大邱
拳◇闘◇大◇試◇合
▲時日 十二月十四日(雨天順延)
▲場所 驛前公會堂
◇主催 大邱佛教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大邱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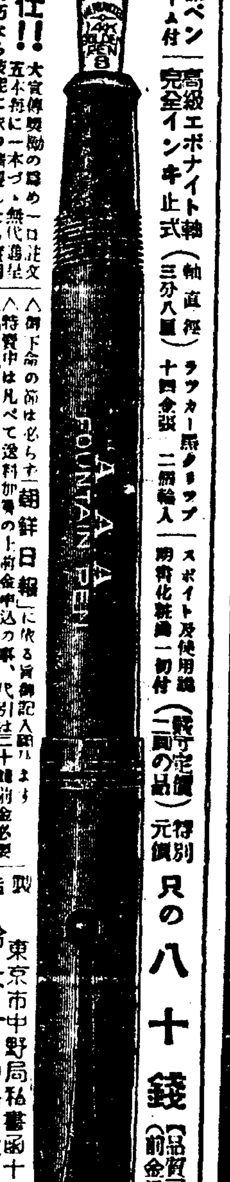
大同
基青男女雄辯討論會
▲時日 十二月二十六日下午七時
▲場所 大同郡將泉教會堂
◇主催 基青勉勵會東酉聯合會智育部
◇後援 朝鮮日報大同支局

皮膚病退治 데ー무水
效力本位
●말롱●음●습진●무좀●태독●부스럼●진물나는대●가려운대●버짐●전풍●한어룩러지●여드름●은깨●동가증●痔、肛門●진돌은대●藥과칠덧난대●터진대●어러터진대●살거친대의皮膚病一切에
使用하야서쓰리지안코압푸지안코눈에안
이안ㄸ 이고끈적 끈적안코、냄새안나고、用法簡便으로빨니낫는데ーム
水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全國各藥店에잇슴
東京市芝區田村町 大阪天王寺石ヶ辻町
東京藥院

使用法이簡便하고 絕對廉價의加糖粉乳
明治(赤罐)コナミルク 가루젓

半ポンド入 壹圓・五十錢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獎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변두리골압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슴니다
各處賣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ノーシン 노ー신

이商標에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三十入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五三番

實用本位の新製品
サンエイ
高級萬年筆
實物宣傳
サービス特價元
(實出總數十萬本限)
ペン先が刺ビサところと書き良い世界的大發明 絕對な
十四金二號ペン イリヂューム付 高級エボナイト軸 完全インキ止式 (軸直徑三分八厘) ラッカー蒔クリップ 十四金張 二層輸入 スポイト及使用說明書化粧箱一切付
(實物大)
特別奉仕!! 大賓傳獎勵の爲め一口注文五本毎に一本づゝ無代進呈
○新化學と精巧なる技能に依り精製したる實用唯一品! 新案登錄第一〇七九六二號

△御下命の節は必ず「朝鮮日報」に依る旨御記入願ひます
△特賣中は凡べて送料加算の上前金申込の事、代引は三十錢前金必要
△品お氣に入らぬ時又は途中破損したる時はお取替又は返金致します
△御送金は振替口座、小爲替、切手代用一割増し何れも結構です
特別價 只の八十錢 (品質三ケ年保證)(前金送料十二錢)
製造元 東京市中野局私書函十八號 鈴木合名會社宣傳係 振替東京九九八六番

新發賣
青鳥印バニシングクリーム
바니싱크림

문질너발느면 살르르 살결에녹어들어
몰나볼만큼 어엽버진다……
新美白크림!
皮膚에의吸收가빨음으로
살결을곱게하고
淡化粧下로쓰고 特히
脂肪性만흔분에適當한크림이다
30전
青鳥印 頰紅(一號・二號・三號)
青鳥印 口紅(一號・二號・三號)
青鳥印 粉白粉(白・肌・黃・ばら)
青鳥印 棒眉墨……
(各)三〇전
東京資生堂 製品

浪花館
松竹ニュース
メトロ、アワーギャング喜劇
坊やのハイキング
松竹下加茂傑作
野狐三次
坂東好太郎之助主演 オール、スター、キャスト
火災と喧嘩は江戸の花! 江戸っ子三次が見せる男の意氣と涙!
第一映畫オールトーキー
父歸る母の心
月田一郎、山田五十鈴、夏川大二郎外オールスター
全篇赤誠地獄不朽名作映畫化! 文壇巨匠の人間の恩愛外史! 모성의 사랑의 감격의 도가니

中央舘
永樂町 電本西三
徐廷權對ピネダ
決死の肉彈戰 五卷
世界的選手徐廷權選手勝利第一回仕合、リンクを鮮血に彩らし展開する壯烈悽慘の大拳闘映畫
コロムビア映畫社超特作日本版
ジョン、フォード監督
エドワード、G、ロビンソン 主演
俺は善人だ 全九卷
ジーン、アーサー。ウォーレス、フォード共演暗黑街映畫のニュータイプとして米國映畫界を完全にリードせる問題の大ギャング映畫

團成社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 九七
十二月十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六時半)
[特別大興行]
R・K・O・라듸오超特作映畫
찐저로자ー스、아이린 푸레드、아스테 主演
로바ー다
拔群의音樂舞踊映畫、그華美絢爛한노래의三重奏、豪華絢爛한流行의粹、愉快한音樂의떡코리!
◇R・K・O・라듸오特作映畫
뿌라이안、에한、장허숄트番、루카ー스主演
泉(새암)
映畵藝術의新境地! 사랑과生活의泉은스사로自己마음가운데잇나니、그外觀으로부터解脫하여라、高踏的最高名篇!!
◇嵐寬壽郎 主演
荒木又右衛門
嵐寬壽郎映畫社全發聲
次週封切
사랑의匿避所、夕暮의노래

東洋劇場
竹添町一丁 電光3二二番
十一日ヨリ特別大公開
歲末大サービス二十錢均一奉仕
國難を叫ぶ日蓮 十二番
原作 佐藤垣之助 監督 曾根千晴
巨星 早川雪洲 主演
阪東壽之助 市川紅梅 市川朝太郎 高津慶子 共演
大阪每日新聞特別撮影新興キネマ提供
十二月十一日부터 名畫鑑賞週間
晝夜二回 午後一時 七時開映
獨逸우파社超特作(日本版)
狂亂의몬테카ー로 全十卷
監督 한쓰 슈왈쓰
主演 한쓰 알바쓰
同 안나 스텐
同 한쓰 류ー만
佛蘭西반달에띠ー라特作(日本版)
紅髮(닌진) 全九卷
監督 쭈리안 떼삐삐ー에
主演 아리ー 뽈
同 로벨ー 리난
同 루이 꾸ー듸ー
豫告
十二月十五日부터晝夜二回 青春座 第一回公演
新劇團
崔獨鵑作 悲劇 情房悲曲 二幕三場
李雲芳作 社會劇 國境의밤 二幕
九月山人作 喜劇 棄兒一個百萬圓也 五場
主要멘버ー(無順) 黃徹 沈影 徐月影 朴齊行 金仙草 金鮮英 車紅女 李雲芳 洪海星 其他新進男女俳優二十餘名

今年經濟界回顧와 明年大勢打診 ①

金融

昭和十年度의 金融界를 도라보면 低金利浸潤化時代의 一線이 눈에비치인다 勿論一線途上에는小波動이잇섯스나 一年을 通觀할時는 大勢는 依然低金利基調에 則하야 經濟情勢好調에 隨伴하얏고 赤字公債消化도 良好하야 順調인 低金利浸潤化를 繼續하야왓다

×

먼저 今年上半期를보면 前半의短資逼迫、金融引締와 後半의 金融緩慢期의 二大別을 할수잇스니 即今年에 入한後 三月까지는 近年稀有하야 增加勢를 밟어온 銀行預金이 每月減少한他方 貸出은 逆으로 增加하야 三月末에는 콜翌月物의 「레-트」는 九厘五毛라는 近年稀有의高價를 示現한때문에 一部에는 金融基調의 逆轉까지 思케하기에至하얏스나 이 預金減少의 原因은 主로 一、政府資金撒布의 遲滯와 二、有價證券投資로 預金引出이 行한事에 歸할것이오 또貸出의一時的增加와 콜市場의 强調는 一、銀行이 業績低下防止로 積極的 貸出競爭을한것 二、北鐵買收資金、東京市關係貸付等에다가 三、納稅資金의 移動도잇슨때문이다。 四月以降政府資金의全國的撒布에 依하야 預金은再加增勢에 歸하고 貸出은 減少傾向을 보기에 至하야金融緩慢狀態에 復歸하고 期末인六月에 至하야 配當資金需資金의 出超가 旺盛하얏슴에 不拘코 異常의 平穩을 維持하고 期末의 콜翌日物「레-트」는 僞定的인 七厘에止하고 稀有의 平調를 보이엇다

×

그다음에 下半期를 大觀하면 每月下旬相當金額의 米券償還期限이 到來하얏슴에 不拘코 七月을 除하고 八、九、十、十一月의各月末共히 콜市場은 相當히 緩和한情勢를 繼續하고 이때문에 日銀總裁는 「콜市場은 强調이나 이로써 金利全般을 推量할수업다」고거듭말하게되엇다。 이것은 米、生絲高乃至貿易出超等 環境良化를 一因으로하고 他方銀行信託何市場資金의 稀薄인데다가 更히 政府諸支拂減少를 본것이 한 一面緊縮方針을 採用한結果 業績不振의 打開策에 依하한 輕減시 增加한 結果이엇다。 또 콜市場의 이强調를 度外視하고 一般金利의動向은 이上下期를通하야 一般金利浸潤化傾向을 擴大하고 特히 下期에 入한後는 地方銀行의 預金利下가 繼續되어 五分以上의 預金이 消滅되고 地方金利의平準化는 一層普遍된 觀을示하얏다。 그러나 이에關係하야地方銀行業績不振打開策으로서 中央大銀行間에도 當然預金無利下를 前向하로한預金利率引下問題가 論議키에 至하야 低金利傾向은 平準化以上으로 一段深化를 보이지나 안흘가하는感을 가지게하얏나。 이것이 夏頃의 情勢이엇다。 이에對하야서는大銀行間에도異論이잇던데다가 物價高、株式高를主因으로한 資金需要의 增加가 顯著하얏던때문에 自然消滅의 形態로되엇다。 그러나 貸出增加의 反面、그貸出利率의低下에依한 業績不振化傾向은 銀行當事者에게 依然相當한脅威를 與한때문에 드듸어 水曜會에서 貸出最低協定率의 嚴守를再協議케되엇다。 또最近이에 繼續하야 最低協定率引上論까지 생기어 窮狀의一班을 暫見키에 至할터이다

×

如斯히 一年의 足跡을回顧하야 明年의 金融界가 如何할까하면 그러큰變化는 업슬것갓나。 더저最近 資金需要喚起의 原動力인 財界好調의三因 即貿易狀態의良好、主要農産物價格動勢와 株式界의 殷盛의將來는 問題가되나。 今年日本의 貿易은 그總額에잇서 또貿易決算에잇서 世界大戰以來의 記錄을 돌고저하는 好調를 示하고잇는데 米國財界의好調도 아속더繼續性을 認할수잇고 에서 여러가지 防遏手段을取코잇지만 綿絲布、雜貨類의進出은 依然活潑하리라고 觀測되나。 또 되다그다음 繭絲價等의 値上은 主로서減産에依한 供給不足에原因되엇다하나 이때문에 相當한潤澤을 農村이 享受하고또 이에 基하야 財界明朗化、金融界繁化의 一因을 招來하얏는데 이影響은 明年에도 一層顯著할 性質의것이다。 株式은 本來 高價無常한것임으로 一括로 期待할수업스나 低金利浸潤化와 共히 有力한投資口로서 機會잇는대로 買煽될將來性이 만흔것을 否認할수업다。

×

眼을 一方에 海外로 轉하면 伊國戰爭도 一段落될모양이오 지금問題가 되는것은 軍縮會議의 前途와 金本位國의 動向인데 이것도 別變化가 업슬것으로보이며 滿洲方面에의 流出資金도 滿鮮의 明年度豫算計劃에 依하야서도 알수잇슴과가티 漸減色이 濃厚함으로 이方面으로부터의 資金需要의 減退는 相當한 影響이 잇스리라고 觀測되나。 또 起債界는 秋季殷盛化를 期待하면서 證券業者는 先刷로한 過度로 因하야 二個의(公私)에 허덕거리고 잇스나 이것에 注意만하면 도리어 來春도 金融緩慢化와 共히 一流物과 二、三流物과의 區別을 截然케 할수잇울것으로 이方面의 明朗化가 期待되며 또 注目되다。

×

以上을 要컨대 이下期以來漸增한 資金需要傾向은 一層繼續性이 잇다고 생각됨으로 이

全朝鮮銀行의 預金貸出激增

預金三億七千萬圓貸出七億餘萬圓

組銀開設後新記錄

全朝鮮組合銀行의 十一月末現在 預金、貸出高는 預金三億七千六百十一萬八千圓 貸出七億四百四十五萬三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預金二千七百九十八萬八千圓 貸出三千九百七萬九千圓 前年同月에 比하야 預金六千六百四萬一千圓 貸出九千三百四萬七千圓의 各增加인데 預金貸出이 모두 組銀開設以來의 最高記錄을 나타내다

貿易外收支 朝鮮受支計算

廿五年間流入四十億圓 支拂金額廿六億餘萬圓

【總督府財務局調査】 昨年中의 朝鮮貿易外收支明細調査에 依하면昨年中의 貿易外收支는

▲對外國關係

受取勘定 三三、一二五
支拂勘定 一六、〇六六
差引受取 一七、〇五九

▲對日本內地關係

受取勘定 四二九、五二二
支拂勘定 九三、九三三
受取超過 三三五、五九〇

으로 合計受取超過額은 五千二百六十四萬五千圓이엇는데 前年의受取超過額은 一億一千九百八十九萬八千圓에達한바 이것은今年度부터 計算의 重複部分을訂正한때문에 減額된것인데 貿易外收支勘定明細는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受取勘定

	對外	對日本內地
證券利子配當	七、六三四	三、四二六
事業勞務收入	三、三二七	三、三二三
海運收入	九三一	七、八三一
鐵道收入	三、三二三	四、八〇〇
保險收入	一、三一一	五、六六九
日本內地人外地人轉移內消費	九、一九六	五、二〇〇
總督府關係收入	六	三、三〇〇
日本內地外地에서朝鮮投資	三、〇〇〇	三〇、五三一
日本內地、外地에서回收	九〇	四、一〇一
其他	五、二一六	三二、二七
合計	三三、一二五	四二九、五二二

▲支拂勘定

證券配當支拂	[illegible]	[illegible]
事業勞務利益支拂	[illegible]	[illegible]
海運支拂	一八	[illegible]
鐵道支拂	[illegible]	[illegible]
保險支拂	一五	[illegible]
日本內地外地消費	[illegible]	[illegible]
總督府支拂	[illegible]	[illegible]
朝鮮에서投資	一五	[illegible]
內外資回收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昨年의 右貿易外收支調査에 適하야 日本內地資金의 朝鮮內流入狀況을보면 明治四十四年으로부터 二十五年間 合計流入資金三十九億七千六百萬圓에 達하고이 流出(支拂)은 合計二十六億三千三百萬圓으로 流入超過額은 十三億四千二百萬圓에 達하엿다고 한다

▲鹽販賣高 【專賣局發表】 今年四月로부터 十一月末까지의鹽販賣高는 合計四百十九萬二千五百六十九圓으로 이各所別은 다음과갓다(以下單位圓) ▲新義州 五〇五、九二一 ▲鎭南浦 七一七、三九七 ▲仁川 一、二四八、四〇一 ▲群山 三八一、三二六 ▲木浦 六一、一五三 ▲釜山 五四五、七三五 ▲元山 四二八、四〇〇 ▲淸津 三〇三、八四六

全朝鮮會社總數

四千四百七十社 總資本九億三千萬圓

全朝鮮의 十一月末現在會社數는 四千四百七十社公稱資本金 九億三千三百七十五萬七千圓 拂込資本金 五億五千八百二十二萬七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五百七十二社公稱一億六千七百七十三萬六千圓 拂込一億七百十六萬六千圓의 各增加인데 그內容은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社數	公稱資本	拂込資本
株式	一、四〇二	八六五、七〇五	[illegible]
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麵子會社成立

【忠南北、京畿、江原의四道를一團으로】

朝鮮의 稅務業政制準立을 機로 京畿道內의 七麵子組合으로서 合同成立한 朝鮮麵子株式會社는 資本金百二十萬圓 四分一拂込으로 今春五月五日 創立한바 그뒤京城稅務監督局의 慫慂에依하야 忠南北、江原三道의 麵子製造業者를 統制하라고 關係者間에合同工作을進行하던結果 十一月末에 三道와도 各各合同의 議論이 一致되야 忠南은 資本金六十萬圓、忠北은 四十萬圓、江原道는 八十萬圓의 合同會社가 成立하고 朝鮮麵子會社는 此等 三會社의 法定期限의 滿了되는同時에 此等을吸收合倂하야 明春三月까지 資本金三百萬圓의 會社로 하되게엿다 右麵子會社는 京城稅務監督局의 監督指導를 밧는것으로 朝鮮酒의 原料인 麵子의 統制와 同時에 酒稅의脫稅를 防止할目的이잇다 그러고 同會社의 株式은 一般에게 開放지안코 酒造業者의 保護를 하는 特殊會社인데 目下同社社長은 金思演氏이며 그事務所는 市內鐘路二丁目永保빌딩內에잇나고한다

外地米生産費

調査委員會開催

【東京電話聯合】米穀調査會의外地米生産費에 關한 小委員會는 十二日 午前十時二十分부터 農相官邸에서 열고 安藤委員長、長瀨、有賀、山田、岡田各小委員과 北島殖産、荷見米穀兩局長、農林各局長이 出席한뒤 過般來關係官廳 外地米生産費에 對한 原調査의 結果를 報告하고 正確한 調査가 어렵다는 意見이 一致하고 正午 散會하엿다 그러고 右調査會는 十五日 午後一時半부터 總會를 열고 小委員會의 結論을 報告한뒤 이것을 最後로 廢止할터이라고한다

▲去月公市賣上=京城公設市場의 十一月中 賣上高는 六萬七千四百四十一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一萬七千五百四十五圓의 增加이라고(以下單位圓) ▲日用品市場 花園町 三〇、〇六二 ▲龍山 一四、一〇六 ▲西大門 一〇、四七五 ▲麻浦 七、五〇一 ▲柴旋塞榮市場 敦義洞 一、五一二 ▲東大門 三、三五〇 ▲瑞麟洞 三、六八七 ▲西大門 四、七四八

▲全朝鮮郵便振替貯蓄=全朝鮮 郵便局所에서 十一月中 取扱한 振替郵便爲替의 取扱高는 振出件數 三十三萬四千七百六十六件 金額 九百三十四萬四千六百

○米倉元山支店長木本氏內定=米倉의 元山支店은 十六日으로부터 開業할터인데 初代支店長은 元山倉庫의 專務이든 木本西明氏가 任命되엇다고

○中央物産減資案可決=中央物産會社에서는 十二日 午後三時부터 同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資本圓 九十萬圓을 四十五萬圓으로 半減資에 關한件을 附議可決하고 繼續하야 臨時重役會를열고 今月末 開催豫定의 昭和十年度 決算總會對策을 協議키로 되엇다고

○朝鮮信託總會=十二日重役會에서 協議한結果 今期株主配當 六分据置、受益者配當五分으로 內定하고 定期總會는 二十七日 午前十時부터 京城銀行集會所에서 열더이라고

經濟界消息

郵便振替貯金 ... 七十四圓 또拂戾件數는 三十二萬九千二百七十件 金額千九十三萬六千七百 六十五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振出拂戾가모두九分의 增加이엿다고

米國銀買入躊躇

結局銀政策變更?

◇……中國財界에 重大影響波及難免

【東京電話聯合】 米國政府에서 銀買上을 躊躇하야 畢竟 倫敦銀塊市場은 市勢가 못서는바 大戰當時의 例를 聯이고는 稀有의 現象이며 이로 因하야 一日平均 六萬磅에 達하엿다 日本爲替市場의 倫敦向 銀爲替는 十一日에 出廻皆無로 現在에 日本爲替는 平靜을 保全하는바 이것은輸入側이 爲替手當을 行한 때문으로 米國政府가 積極的으로 倫敦市場에서 銀買上을 한다면 日本爲替의 先物勢는 必至케될것으로 觀測된다 日本各銀行에서는 米國의 銀買入躊躇로 因한 銀의 暴落이 中國과 各方面에밋치는 影響이 매우重大 함으로그推移에 深甚한注意를 하고잇나 到하엿슴을 不拘하고 米國政府側의 買支持가 업서 市場은 銀政策에 큰不安을 늣기고 倫敦市價의 從來公定市勢허서는 銀價暴落이 必至케될것으로 關係方面의 注目을끌게되엇다

倫敦銀塊價急落

東洋側賣物殺到

【東京電話聯合】 오래동안 停頓狀態에잇는 倫敦銀塊市勢는中國의 幣制改革斷行을 契機로 動搖가 생겨 連日 軟化의氣勢를 示하든바 十一日入電에 依하면 東洋側의 賣物이 殺到하야 現、先物이 모두 스지못하고 經濟의 遊資情勢를 反映하야 六十三仙四分三으로 前日에比하야 一仙이 急落케되고 今後의、米國政府態度如何에 따라 不得하

京城銀價暴落

倫敦銀塊暴落에 追從하야 京城市中銀價도 十二日은 賣一匁二十五錢、買二十二錢五厘로 前日보나 賣一錢、買一錢五厘의 暴落이엇다

北中現銀南送制限

法令을公布

【上海十二日發聯合】上海中國側消息에 依하면 冀東自治委員會는 十一日 行政院委員會를 通過하고 同時에現銀의 南送制限令五個條를 公布하엿는데 그要項은 다음과갓다

一、北中國의 現銀持出을嚴禁함
二、一切의銀行 金融機關은 本區內의 支拂에際하야 中央銀行紙幣及「上海」의字를 紙幣面에 印刷한 各銀行의 紙幣를 使用함을 不得함
一、本委員會及所屬 各縣當局은 前條記載의 紙幣를 收授함을 不得함

商況(十二日)

株式 一高一下 採合

前場低落 今前場은 스릴 小高나 米桶一圓二十五錢低로 絲一百圓關門危殆、銀塊暴落等의 材料를 受하야 買氣不立하고 嫌氣賣로 低落이엇스니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一圓八十錢低인 百七十二圓十錢 日産一圓二十錢低인 七十一圓九十錢 大新一圓三十錢低인 百圓八十錢 朝取同低인 三十一圓五十錢에 各大引

後場小高 後場은 押目買物로 反騰하야 前引보다 東新一圓七十錢高인 百七十三圓八十錢 日産八十錢高인 七十二圓七十錢 大新五十錢高인 百一圓三十錢 朝取 三十一圓六十錢 鐘新百五十八圓六十錢에 各大引

軟化氣分誘導 商品도不勢!

米國의 買支가 업서 前途를 悲觀에 隨한 銀塊의 崩落은 經濟하야 形勢不良이며 스릴株도 反落途程에 入한모양이고 米桶暴落으로 綿絲二百圓關門危殆를 不振일뿐아니라 人絹은 低迷로 弱으로 五十三圓臺란 惡化로서 好轉難의 勢이고 九百圓突破는生絲도 八百七、八十圓臺에서 鈍狀일뿐아니라 米價도 不動하는等 商品界沈靜과 아울너 株界도 年末高期待未解消이나마 東新市勢는 자못錯亂인듯 하면서도 伸縮하야 或은 目前鐵氣의 一藥이 나오지안홀가 念慮되엇다。

米期 閑散裡에 漸弛

前場鈍狀 昨後場의 放地三十圓七十四錢에 强含인 二十八圓七十六錢止와 共히 二十八圓十八錢인 前場은 今朝에 入하야 反地初付三十圓七十八錢 二十丁高로 始하고 二十八圓七十一錢인 二十丁低로 墮落하고 七十六、十九錢으로 始始한後 放地相場低不振하얏스니 七十錢까지 反落止場하얏다

後場下弛 後場은 二十八圓七十錢에 二丁低로 始場後五節까지 同價로 不動이다가 六十七錢에 止場이다

農家는賣惜코 思惑側은躊躇

昨今正米市場의 情勢를 綜合하

鐘新은어떠나

上市勢終焉?

七月低價에서 五十三圓이나 棒上된 鐘新은 百六十圓이 깨어저 速騰市勢一巡의 觀을呈한바 이以上은 仕手에 依하야 動케될것으로 買進할것이아니오 特히 目的으로 冷靜이 觀察이 아니면 綿業事情과 人絹業界를 생각할때 鐘紡이라할지라도 不安圈外에 立할수업스니 無碍히 上價를 바랄수업슴이 妥當한 見解로서 買方으로서는 速히利喰할때이라는말이잇다

實物株前場取引

(取引高一六〇枚)

▲朝鮮石油二〇 ▲大同電力[illegible] ▲同新二〇 ▲日産新二〇 ▲鹽水港新[illegible] ▲帝國火藥[illegible] ▲人造肥料[illegible] ▲東滿皆平[illegible] ▲朝鮮製鍊[illegible] ▲北鮮製紙[illegible] ▲金剛電鐵[illegible] ▲月島機械[illegible] ▲朝鮮酒造[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 五分利國債는 採算難으로 買物이 出現하야 十錢買進되고 佛貨도 五錢上向으로 米貨는 十五錢賣하얏다

甲五分利 一〇四、三〇

高價保持는頭重

高價期待無理論

年末特有의 警戒로못쓰기市勢를 거듭하고잇스나 今日까지 모든 惡材料를 買한 터로서 前途의 好材料는 充分하고 買氣分까지 머리가무거운모양이다。 인만큼 雜株의 追從을 待하야 活躍을期待하는모양이나 雜株方面은 玉石混淆時代로서 西川市勢의 不脫하야 東新의 支援이 되지못하고 所謂國力伸展까지 織入한東新은 今日以上의高價를 바람은 無理라는 見解도잇서 今後가注目되엇다。

深入은難期나

小落은難免?

日本內地米作第二回豫想이 五千七百五萬石의 大減收를 一契機로하야 猛烈買進하든 彼派도 更히 더用蹶하지못하고 그反映으로는 時期가 時期인만콤 賣方의 抗戰도업지아니하야 結局 地도업시 此邊에서 年末大納會에서 低落한다할지라도 深入을 許하지안홀가한다

市場六感

株 强氣는 年內에 活躍치안흐면 年初에는 반드시 活躍할것을 바라나▲이미모든 好材料를 買하얏고 所謂國威伸長까지 織入하얏스니 더올를 수업다는말도나온다▲百七十圓以上에서 버틔기는하나 못올라가니 이런소리가 나옴도當然▲그러나 百六十圓臺에서오래保合할때에도 이런소리가나왓섯스나 百七十八圓으로된經驗이잇는지라 이때문에 高價保持인 東新을 팔지못하는모양

米 昨今各地市勢는 全혀膠着狀態로 依然保勢를 繼續하나 그러나 今朝는 幾分軟態에傾하엿다 ▲多少軟弱하다고 追擊寶도할수업고 또買進할수도 업슨즉 참아리 越年後에 作戰하기만不如▲問題의 買上은 아니하는모양이고 다만期待할것은 來十七日에 決定될 昭和十年度産米의 公定價格▲此公定價格은 旣히 周知하는바와如히 一圓程度의 引上을할 모양이지 ▲此는 旣히 市勢에 織込하엿다고 할수잇슴으로一圓引上을하엿자 別波瀾이 업슬듯▲그런데 昨今市中의 思惑側態度를 窺하면 俄然躊躇하는 光景 然高調로 ▲그러고 農家의 賣惜하는그反映으로는 日本內地의 買往文이 또한稀薄하야 結局市勢는 幾分軟弱 ▲境遇에 依하야는 年末에一落을 告할지도 몰은다 그러치만 二年繼續의 大凶作을 當하고 安心할수 도업는일이엇다

朝取期米取組高

	◇買方	◇賣方
當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況

【大阪電話】 環境不妙의 無材料로 閑散이 繼續 無活氣이오 極度閑散을 呈하얏다

▲賣方 中東側 東京側 朝鮮
▲買方 西側 地場强氣側 正

大邱軟化 織紛하야 賣物薄이나 人氣는 季節的으로 軟調를 呈하고 定期의 釘付로 市勢는 角ク三等二十八圓丁 十錢崩落인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十五錢

群山小綏 産地賣氣潜在이나마 日本內地不合으로 新規取引이傍觀되고 僅히 旣約側의 買

今日財界(十二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新期米 先限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 一斤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古無現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勢 定期의 釘付와 貨行不立으로 市況이 極度閑散인 九仁三等 二十八圓二十五錢 四等二十七圓九十五錢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不冴 産地의 硬强으로 不透明한 商狀을繼續하야 市場는 依然舍弛調를 不改하야 丸仁三等 卄八圓卄五錢 四等卄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三錢

釜山小弱 年末을 압두고 八千叺의 賣物이 雜米되엇스나 此邊販賣前當限米의 渡出側의 買氣가 旺盛하야 堅調로 進하고 六八入一叺의 取引이成立되어 市勢는 五錢低인 角ク

木浦集付 極度 日本內地不買와 定期의 大保合으로 賣方이 沈默을하야 市況不振中에 保合인 丸木三等 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鎭南浦 定期保合이오 明己五錢 小綏인 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 十二圓六十錢

金融(十二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米穀(十二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商品(十二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 [illegible]
◆카다五期麥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株式(十二日)

◆朝鮮取引所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實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滿洲取引 [illegible]

期米(十二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一六五

福 明林取引店 京城明治町
福 吉林取引店

金.銀.白金
力德城京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3334 電話本局3930
應需御賣買引換金代 地方注文 金先料送要

玉蜀黍購入
五圓貳拾五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貨車乘叺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하나이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